AUG 2 1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53 1981년6월30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June 30. 1981

강우석회장 사표

"한인회 분규에 책임진다"

◇강우석 회장

◇박태식 부회장

강우석 토론토 한인회장은 26일밤 사표를 제출했다.

강회장은 최양욱 이사장에게 전달한 사표에서 "이번 한인회 분규의 전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 그동안 협조해준 교민에게 감사하고, 토론토한인회의 발전을 바란다"는 요지로 말했다.

한인회 집행부는 지난4월 말부터 조신자간사 해임등 문제로 이사회와대립, 한인회 업무에 지장이컸다.

이사회가 지난 5월5일회장단을 불신임하자 회장단은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이사회의 해산을 요구했었다.

강회장의 사임으로 26일밤 모인「한인회 업무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박태식 부회장의 진퇴에관한 문제만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전 회장단전원등 25명의 대책위 인사들은 박부회장도 사직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뜻을 김문량, 조영호, 박학수씨등원로3명이 박씨에게 전하도록 결정했다.

대책위원들은 이사회가 지난 5월5일 회장단을불신임한것을 지적,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부회장은 "누가 무조건 물러가라고해서 명분 없이 물러갈 수는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김씨등 대책위원3명은 박부회장을 만나 사퇴를 권고했으나 박부회장은 이를 일단 거절했다.

최이사장은 7월초순 이사회를소집, 강회장의 사임서를 처리하고, 회장단이 궐석이 되면 이사회에서직무를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칙에 따르면 회장의궐석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앞서 강회장과 의견충돌을 갖고 성명서까지 낸 김광석부회장은 사표를 내지 않았으며, 18일 이사회에도 출석했었다.

최이사장은 29일"같은봉사자로 일하던 사람이 사표를 내니 착잡한 심정이며, 현 한인회 상황을 참작, 사태가 평정되고, 공신력이 회복되면 물러가고픈 심정이라고 말했다.

강회장은 지난1월 취임했다가 5개월만에 사임한 것이다.

경제협력증진

럼리장관 기자회견

(서울=연합)캐나다는한국전력의 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가까운 장래에 세부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방한중인 에드워드·럼리 캐나다 국제무역담당장관이25일 말했다.

한인민족상 시상식 개회사

TTC사건이 한인사회 상징 아니다

위원장 구 상 회

■지난 27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제1회 한인민족상 시상식에서 구상회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은 민족상과 한인사회와의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설명했다.■

◇구상회 박사

우리는 이자리에 교민사회 발전을위해 수고하고큰 공적을 쌓아 모든교민의본보기가 된분을 표창하려고 모였다. 이 민족상의 취지는 무엇이며, 어떠한 분이 표창되는 것인지?

이민역사가 겨우 10년되는 캐나다사회에서 한국문화의 씨를심는일, 또는캐나다 사회에서 교민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사업을한다는것은 말로는 쉬우나실천에 옮기기는 힘든일이다. 더우기 좋은성과를 올리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다. 큰 포부를 품고 교민사회에서 문화활동, 봉사사업에 착수는 했지만 뜻하지않은 난관에 부닥쳐 기대했던성과가 나타나지 않을때, 초지를 관철못하고 후퇴하고 마는분을 우리는 종종본다.

오늘 수상받는분은 큰꿈을갖고 교포사회를위해 일을시작 했을뿐만 아니라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가다듬어 한인사회를 보다아름답고 살기좋은 곳으로만드는데 공헌하신 분이다.

한인민족상은 이분들을 표창함으로서 그분들의 공로를 한인사회에 널리알려 더많은 교포들이 이분들을 거울삼아 교민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자극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면 한인민족상은 어떤분에게 시상해야 하겠는가?

첫째, 수상자는 문화활동 또는 봉사사업에 발벗고일하신 분이라야 한다.

둘째, 수상자는 각기 표창부문에서 뚜렷한 업적을나타낸 분이라야 한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성과는 도무지 못내는분에게는 미안하지만 민족상은 줄수없다. 이것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좋지않은학생에게 장려상은 줄수있으나 우등상은 줄수없는것과 마찬가지 이다.

세째, 한인민족상 수상자는 한인사회의 존경을 받는 분이라야 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큰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우리가그분의 인격을 존경못한다면 그분은 민족상을 받을자격이 없다.

오늘 민족상을 받으시는 분은 이 3가지 조건을 겸비하신 분들이다.

× × ×

위에 말씀드린 취지밖에 민족상 수상식은 우리교민사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래 한인사회를 염려하는 교포가 모인자리에서는 한인사회에서 늘어가고 있는 불미한인, 특히 캐나다 매스·미디어에까지 알려지는 범죄가 화제에 오른다. TTC표 위조사건이 그 대표적이다. 교포들은 이구동성으로「이런인상을 캐나다 사회에 준다면 어찌 우리가 코리언이라고 낯을들고 다닐수 있으며, 2세에게 한국사람임을 자랑으로 생각하라는 소리를 할수 있느냐」는 말씀을 한다. 이럴때 나는 이렇게말한다. 우리가 한나라를평가할때는 그 나라가 살인, 강도, 강간범죄가 많으냐로 평가하는것이 아니라, 그나라의 문화,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느냐로 평가한다. 미국을 평할때 알·카폰(카포네)를 낳고, 링컨대통령, 케네디대통령을 암살한 사건만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달나라에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어느나라보다도노벨상을 많이탄 사실을보고 세계의 제일가는 국가라고 우리는 말한다.

우리가 한인사회를 평가할때도 교민사회에서 TTC 위조표사건이 몇번 있었느냐를 셀것이 아니라, 교민사회를 보다 명랑하게 만든사람, 캐나다사회에한국문화의 씨를 뿌리는데공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세야한다. 말하자면 한인사회의 올림픽 대표선수를보고 우리를 평가해달라는 것이 다. 오늘이자리에 우리는 올림픽선수로 4분을 뽑았다. 이런분들이 있기때문에 우리는 캐나다사회에서 코리언임을 자랑할 수 있고, 이런분들이 있기때문에 우리2세에게 코리언임에 긍지를 가지라고 말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인민족상은 오늘 수상되는4분에게만 드리는것이 아니라 한인교포사회 전체에게 수여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것은 이와같은 좋은 사업에 창안하여 이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일보—캐나다 지사에게 치하를 드리며, 이 사업이 더욱 발전하여, 진정으로 한국문화창달의 촉매작용을 하게되기를 바란다. 또한 교민들의 보다큰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대신한다.

사 고

이번 금요일 토론토 공연

모국의 인기절정 연예인단

본보〈한국일보—토론토〉 일간발행 기념사업의 하나로 한국의 톱싱거와 그룹사운드, 개그맨등 대규모 공연단이 오는 3일 토론토에서 교포들의 향수를 달래주며, 조국애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및 LA미주본사 주선으로 미주각지를 순회하는 이 연예단의 출연가수는 윤시내, 최헌, 최자매, 최병걸등과 작곡가 김홍탁이 리드하는 그룹 영사운드. 사회겸 코미디는 KBS라디오 인기공개방송 프로인 「노래하는 곳에」의 사회자 이용렬이 맡으며 이들은 쇼·코미디·노래의 푸짐하고 다양한 정서의 선물을 교포들에게 듬뿍 안겨줄 것입니다.

◇최 헌

◇윤시내

◇최병걸

◇이용렬

가수 최헌은 「오동잎」, 「앵두」, 「가을비 우산속」 등을 불러주며, 윤시내는 힛트송「열애」, 「천년」, 「고목」등을, 최자매는「실버들」, 「행복하세요」, 「그사람 바보」를, 최병걸은 「난 정말 몰랐었네」, 「사랑했기 때문에」, 「축제」등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이들 일동은 흘러간 노래와「고향의 봄」등을 청중들과 함께 불러 회포를 풀게할 예정입니다.

개그맨 이용렬은 쇼의 진행과 함께 원맨쇼로 동포들을 웃기고, 가수들과 같이 미주판「이수일과 심순애」(장한몽)등의 코미디를 보여 전부 합쳐서 근 2시간에 걸쳐 즐거운 무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홍탁과 영사운드는「동불」등의 힛트곡과 그룹 연주도 들려줍니다.

이번 공연단은 현역 톱싱거이면서 비교적 지금까지 미주공연을 하지 않은 멤버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들의 노래와 이름만 듣던 동포들에게는 큰 위안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공연날: 7월3일(금) 하오7시30분
공연장: 센트럴·테크니칼 고교(Bathurst & Harbord, Toronto)
입장료: $12. $10
예매처: 각식품점및 본사

4년만에 중앙패권

고교야구, 휘문 준우승

27일 센테니알 파에서 열린 제7회 토론토 한인고교동창 야구대회는 중앙동창회의 우승으로 끝났다.

이날 아침9시 시작된 경기는 A, B, C, D조로 예선을 마치고, 이날밤 9시30분 야간조명이 켜진 가운데 중앙대 휘문의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결승전은 서울 제동골목의 오랜 맞수끼리 붙어 역전, 재역전 끝에 중앙이 11:9로 승리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특히 중앙의 백광현 투수는 이날 예선전을 포함, 4게임을 치렀으나 피로의 기색 없이 결승전 후반에는 무서운 스피드로 휘문의 강타선을 막았다. 휘문은 실업선수 출신의 나종수 선수가 리드하는 강타선으로 힘을 보였으나 투수력 부족에서 또 다시 우승의 기회를 놓쳤다. 예선전 A조에서는 배재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나 두번째 출전하는 선린팀의 활약이 돋보였다. 선린은 배재에게는 15:14로 분패했어도 강호 경기를 16:15로 눌러 이김으로써 관중들을 놀라게 했다. B조, C조, D조에서는 예상대로 휘문, 중앙, 경동이 준결승에 진출했다.

경기는 주심 박재선씨를 비롯 심판진의 완숙한 진행으로 한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끝났다.

예선전 이후에도 서울: 경복, 성동: 서울사대부고, 경기: 용산등의 친선게임이 준결승, 결승전이 진행되는 사이에 벌어졌다.

이날 센테니알·파에 모인 관중은 약500명으로 추산(본부 집계)되며, 선수들과 각 고교동창및 가족들이 모여 응원전을 벌이면서 야유회도 가졌다.

금년도는 용산고동창회가 주관했으며, 내년은 선린상고동창회가 6월경 주관키로 내정됐다.

이날의 전적과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A조예선
배재 11:10 경기
배재 15:14 선린
선린 16:15 경기

◇B조예선
휘문(승) 8:3 용산
휘문 25:5 서울사대
용산 22:6 서울사대

◇C조예선
중앙 5:1 경복
중앙 26:2 성동
경복 26:13 성동

◇D조예선
경동 26:18 서울

◇준결승
휘문 28:10 배재
중앙 17:6 경동

◇결승
중앙 11:9 휘문

◇시상내용
우 승: 중앙
준우승: 휘문
3 위: 배재, 경동
협력상: 경기
장려상: 경북

〈알 림〉

우편파업중 무료픽업

캐나다의 고질인 우편파업이 전국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독자 여러분은 파업이 끝날 때까지 신문을 받아보시지 못하게 됐읍니다.

본사는 파업중이라도 신문을 계속 발행했다가 파업이 끝남과 동시 일제히 발송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본사는 각식품점과 음식점의 협조를 얻어 주 3일 배달, 독자 여러분이 무료픽업하실 수 있도록하며, 각종교단체 모임과 한인사회 행사때마다 신문을 전달, 무료배부토록 하겠읍니다. 그외의 배달방법이 없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파업이 오래 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지만 본사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실을 감안, 독자및 광고주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를 앙망합니다.

— 한국일보—토론토사 드림 —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김 형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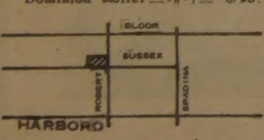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연$90, 월$8.00
SECOND CLASS MAIL NP918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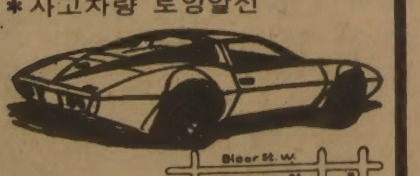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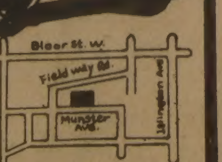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운동구점 개업
여름휴가 특별세일
①GOLF
●Slazenger Golf Shoes
R.g. $71(×) 세일가격 $49.00
●Hush Puppies Golf Shoes
세일가격 $36.98
②단체유니폼 마춤
각 동창회및 교회주문 환영
③각종 트로피및 감사패 주문
④ROLLER스케이트
사이즈: 1 to 5, $39.00
Dominion Roller스케이트 $78.00


VARSITY스포츠점
252 Robert St. Toronto
967-7304 이 건 영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L&K AUTO BODY
완전바디와 완전정비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 처리
*완전 차체수리 *페인팅
*사고차량 토잉알선



오세호
(B)231-6951 (R)742-5406
346 Munster Ave. Toronto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 (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 (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유 지 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6·25 특별연재

캐나다군의 한국전 참전 ⑤

한국전만은 바보놀이가 아니었다

◇캐네디안들이 한국전에서 용감히 싸왔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들에게 늘 감사, 토론토총영사관은 지난25일 6·25참전 캐나다용사 위안파티를 베풀었다. 이날 스카티쉬·밴드가 전통적 가락을 연주하고 있다.

적군은 주로 밤에 끊임없이 공격해오기때문에 밤들을 뜬눈으로 새워야 했다. 그렇다고 낮에 자는것도 힘들었다. 이것은 결국 전쟁이기때문에 한마디 경고도없이 지옥문이 열릴수있기 때문이었다.

똑같은 상황이 오늘날다시 일어난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싸울수 있을까? 록킹햄장군은 이런질문을 받고서 어떠한 비판론에도반대하지만 자기가 읽은 신문여론조사는 많은 캐나다군들이 전쟁을 바라지않는 결과를 보였다고 덧붙인다. 그는 분명히 그때상황과비교할때 오늘우리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한다. "브룩·크랙스톤(당시 국방장관)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지원을 했었다." 라고 장군은 회상했다. 반면 지난15년동안의 어느현역장성도 크락스톤 이후의 국방장관들로부터 같은수준의 지원을 받았다고 말할수는 없을것이다.

TV인기 코메디물 매슈「MASH)가 성공하는 원인은 한국전의 참상을 피하고 또 한국전을 초래한 정치상황을 외면한데에역점을 둔 때문일 것이다. 매슈는「전쟁은 지옥이요바보놀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전쟁은 지옥이다. 그러나 한국전이 바보놀이는 아니었다.

다행스럽게도 한반도에서 총성이나자 뒷짐지고강건너 불보듯한 바보스러운 정치가들은 없었다. 그들은 나치의 침략준비앞에서도"우리에게는 명예롭게이루어진 평화가 있다"고 호언한 영국의 네빌·챔버린 수상같지는 않았다. 물론 모든캐나다인이 참전에 찬동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수긍했다.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면 대중은 외면했을 것이다. 우리 캐네디언들은 장점인지단점인지 모르지만 우리의전투를 포함한 모든 생존경쟁에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두자우리는 잠깐 감탄한후 곧 돌아서서 우리의 영웅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렸다. 이 망각을 긍정하는 이들도있다. 그들은"신은 영웅이없는나라도 돌볼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은 영웅이 없는나라를 돌본것이 아니라 영웅의 필요성이없는 나라에 축복을 주어왔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끝)

◇참전용사 파티에서 이상훈 총영사가 휠·체어를 타고나온 릴리여인과 담소하고있다. 릴리여인 가슴에는 한국정부가 준 메달이 번쩍인다.

1위 정길수씨 76점
토론토연합교회골프대회

토론토한인연합교회 골프클럽주최 제8회 한인친선골프대회가 지난 27일70여명 참가로 석크라인·버그 골프장에서 거행됐다.

1위는 정길수씨로평균76. 이날전적은 다음과 같다.

●그로스
1위 : 정길수 76
2위 : 박영철 77
3위 : 차자윤 79

●씨니어(50세 이상)
1위 : 이상철 89
2위 : 최동호 95

●여자부
1위 : 조인수 119

야외예배·여름캠프
뱅쿠버한인연합교회

(뱅쿠버)지난 14일 뱅쿠버의 컨페데레이션 공원에서 야외예배를 본 뱅쿠버한인연합교회(목사반병섭)는 오는 17~19일(3일간) 골든이어 그룹캠프장에서 여름캠프를 실시한다. 진윤영친교봉사위원장이이번 캠프준비를 진두지휘 한다.

한국일보
533－2363

그 영원한 목가(牧歌) ⑧

서부의 역마촌

권 순 창

짙은 구름뒤에 얼굴을내밀기 시작한 태양. 간밤동안 푹 쉰 덕택에 가뿐한 기분으로 출발, 「알버타」주경에 도착. 알버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주분계선의 환영 표시판. 한마디로 약동하는 느낌은 주경계선에서부터 시작,움직이는 도시, 발전하는 서부를 실감케하는 기름의 본산지답게 늠름한 기상이 엿보였다.

주를 상징하는 빨간꽃 아래 환영글자를 크게 써 놓았고, 휴게실, 화장실, 안내소, 모든 것이 잘 계획돼 있어 주정부의 부(富)를 상징하고도 남았다.

32킬로를 서진(西進), 「메디신·헤트」에 도착. 「기름의 도시」「에너지의 도시」등의 거창한 자랑이 군데군데 크게 걸려있다. 황금럿쉬가 캘리포니아를 성장시켰듯이 오늘의 알버타는 검은 금을 찾아 몰려든 꿈꾸는 젊은이들로 붐비고 있는듯하다. 이 도시(Medicine H at)는 이름 그대로 인디언어(語) 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요술을 부리는 모자. 이 요술모자는 그들에게 부와 행운을 가져왔다. 곳곳에 진행되고 있는 건축붐, 현대식 모텔과 각종 연쇄 점들이 속속 들어와 있다.

「켈거리」 가까운 「스트레스모어」위성도시 근방에서 부터는 각종채소밭이잘 개간되어있다. 특히 지형적 변화는 방풍림으로 재배한 키가 큰 포플러 그루들이 인상적이었다.

포플러를 보니 한국의 농촌이 금방생각났다. 이 이태리산 포플러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아프리카산 아카시어와 더불어 개화기 전후라는 보고가 있었다. 어떻든 포플러는 시원한 여름 강변의 풍경을 돋보이게 하는 수려한 인상을 주는 나무이다. 채소밭 경작에 현대식 관계 시스템이 잘 개발되어 있었다.

「켈거리」 도착. 도시외곽지대에는 주택단지 공사가 한창이고, 도로 확장등의 각종 토목공사도 열을 올리고 있었다. 시내 중심부로 들어가다「센터·스트릿」시청가까운 곳 작은「차이나·타운」이 눈에 띄었다. 거리는 활발했다.촌스럽기는 하나 그런대로 붐비는 듯했다.

카우보이, 카우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도로는 협소하고, 도시계획은 서부의 개척지와 같은 인상을 줄 정도로 유치하다. 목동들이 드나들던 개척촌은 바야흐로 우주시대의 경제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한다.

거리에는 유난히 젊은이들이 많다. 황금경기를 따라온,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녀들로 붐빈다. 검은 가죽잠바를 걸친 헬스·엔젤스형의 오토바이갱「Biker Gang」들이 수십대의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질주한다.

엊저녁에는 그들의 아지트가 불탔다고 했다. 현장에 가보니 아직도 김이 무럭무럭 나는 불탄 자취가 보였다. 카우보이와 그들, 그리고 경찰의 알력이 심한 듯했다. 또한 경기를 따라온 또 한패의 철새족들이 붐빈다고 한다. 각처에서 모여든 흥동가의 아가씨들.

이곳의 한인교포는 수백명이라 했다. 맥스밀크지배인으로 일하는 토론토에 거주했던 분을 만났다. 현재 이곳 맥스엔 대부분이 온타리오에서 온 한인교포들이라고 전한다.

이 도시엔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 붐빈다. 심지어는 맥도날드에 식사를 하러가도 한참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자체 유전이 많아서 알버타는 휘발유값이 무척 싼 곳이다. 추럭에 가득채워 넣고 떠난다. 아디우스·켈거리 —.

산악 표준시간(Mountain Standard Time)으로 하오 5시반, 일번국도를 타고 서쪽으로 계속 주행한다. 도시의 서쪽 외곽을 빠져 나오니 저쪽 지평선 끝에 병풍을 둘러놓은 듯한 장엄한「록키산맥」이 시야에 들어온다. 산 뒤에 산이 있고, 산 위에 산이 있는 이 첩첩의 산들—. 푸른 산맥 그 웅장한 모습 앞에 감탄을 연발하였다. 아내는 비행기에서만 보던 이 영봉들을 땅에서 쳐다보니 과연 그 자연의 위대함에 놀란다고 숙연을 금하지 못했다.

꼬마녀석은 그림에서만 보던 록키산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며 좋아서 깡충깡충뛰며 온갖 환성을 지른다. 3살난 꼬마딸도 덩달아 요란하다. 「2001년우주여행」(2001 space odyssey)에 주제곡으로 나오는 그 유명한 전자음악「자라트스트라」가 들린다.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그 위대한 순간들—. 땅거미가 스며드는 록키산맥입구로 접어드니 산 정기에 눌려 은근히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청마9호는 드디어「벤프」에 도착, 여장을 풀었다. 거리와 상점들은 그런대로 붐빈다. 단체관광을 온 일본인들이 전체의 반이 넘는 듯했다. 산기슭에 산장처럼 지어놓은 모텔 유리창 밖에는 솔바람소리가 들린다. 어릴적 시골집에서 듣던 그 향수어린 자연의 부름, 문을 열고 뒷뜰에 섰다. 저 컴컴한 산골짜기에서부터 흐르듯 밀려와 귓전을 흔드는 그 소리에 나는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기억의 뒤안길을 헤맨다.

오늘은 밤 깊은 줄 모르게 책을 읽는다.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한알의 소금은 소디움과 크로린의 원자가 10^{16}, 즉10,000,000,000,000,000(10 Million billion)이란 엄청난 숫자에 달한다"는 놀라운 얘기,그리고 인간 뇌세포도 10^{11}이란 엄청난 숫자.

—〈제1부 끝〉—

※지난 4월25일부터 두달간 연재해온 권순창씨의「그 영원한 목가」제1 부를 마친다. 지면확장이 되면 계속 제2부 연재 예정이다. 글·그림 아울러 재치있게 엮어주신 필자께 독자와함께 머리 숙인다. (편집자)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㉒

팔리·모왓 원작, 한재홍 옮김

이런 이유때문에 오·덱과 앙그레얄락이 거의 빈손으로 리틀힐로 돌아간 후 프란쯔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분노를 느꼈다.

남은 겨울 몇 개월은 지루하고 느리게 지나 갔으며 아무도 도움을 청하러 다시 오지 않았다.

드디어 3월 초가 되자프란쯔는 북쪽에 있는 이할미우트 캠프를 방문하고 늙은 태좌우의 이글루에서 하루를 지냈다. 프란쯔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의 음식을 대접 받았는데 음식은 그의 왕성한 입맛에 맞지 않아서 곧 실례를 하고 떠나와 버렸다. 그는 제일 멀리 있는 덫을 놓은 북쪽의 경계선까지 가보았더니 거기에 묻어놓은 고기가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다.

3월 중순경에 앙그레 얄락은 총을 가지고 가지 않고 어린아이들의 장난감보다 조금나은 조잡한 활을 가지고 사냥길에 올랐다가 거의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왔다.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활을 쏠 필요가 없었던 긴 세월동안 뿔로 만드는 교묘한 그들의 활 제조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오직 털 가죽을 바꿔서 번쩍번쩍 빛나는 총과 실탄만 사용하였던 것이다. 앙그레얄락은 두마리의 뇌조를 잡아 왔는데 겨울동안 바짝마른 이 새들이 5식구와세마리의 개를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식량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중 몇일 굶어 죽어서 더 이상 먹을것도 필요없게 될 것이다.

앙그레얄락이 마지막 사냥을 떠나기 전 한달동안 한사람이 매일 한입밖에 안되는 음식으로 살았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냥은 뱃속에 남아있는 온 힘을 기울인 처절한 노력이었다.처음부터 희망이 없었지만 사냥은 실패했다. 이제 앙그레얄락이 아무리 애를쓰고 막아볼려고 해도 그 뒤에 생기는 일은 정해진거나 다름 없었다.

죽음이 캠프를 엄습해 왔고 살아있어서 제일 필요가 없는 사람부터 먼저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절차만 남아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누가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앙그레얄락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희망은 있었다. 만일 사냥꾼이 그가 죽는다면 리틀힐로 사슴떼가 돌아온다해도 온가족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의 다음 우선권으로 쿠니이, 파마 그리고 아노티일릭의 어린 아이들인데 그 애들도 살아 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인 새로운 생명을 낳게하는 익톡인데 아이들이 엄마없이도 자랄 수 있게 되어 그녀로서의 의무는 다 마친 셈이었다.

그 다음에 귀중한 개들은 한때 훌륭한 썰매팀에서 살아남은 놈들이었다. 이 바짝마른 개들은 그 가정의 보물이었고 무엇과도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동원력은 가정의 원동력이며 개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얼어붙은 땅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라 훌륭한 사냥꾼이라도 오랫동안 살아남지 못한다. 늙은 어머니 에피—트나를 제외하면 이것이 식구의 모두이다. 그 여자의 위치는 어떠했는가? 그 여자가 보증받을 수 있는 식구들로 부터의 효도나 사랑은 벽감을 소중히 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그리고 이러한 보증 마저도 굶주림이 닥쳐오면 그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이빨 속으로 쉽게 내던져진다.

앙그레얄락이 새 두마리를 잡아오던날저녁 늙은어머니는 잠을자지 않았다. 굶주림에떨던그 몇해동안 그여자는 기다리던 시간이 드디어 왔다. 여인은 참기어려웠지만 죽어서 위안을 받을수 있기를 바랐다. 기날저녁 이여인의 기다림은 눈벽을 바라보는동안끝장이 나고있었다. 이제이 여인의 마음속에 공포가일어났다. 즉 그 공포란 이 노인에게 그렇게 강하게엄습했고 젊은사람이 위험속에서 혼비백산 하게하는그런것이었다. 잠시후에 온 가족은 굶주린 참자의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빠져들어갔다. 그러나 이 노인은 앉아서 그들위에 멍하니 시선을 보냈다. 작은 쿠니가 훌쩍훌쩍 우는소리와 그여인의 아들인 어른의 고통스러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둥그런 이글루의 둥근 천정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결에 모래처럼 사각사각 떨어지는눈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잔혹하게 바스락 거리는 소리는 이여인이 어린쿠니이가 우는소리를 분간못할때까지 계속해서 고막을울렸다.

여인의 혼백이 점점 혼미해 지면서 눈내리는 소리가 점점 크게들렸다. 그 소리에따라 죽음의 공포가 확대되어 왔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문을지키고있던 개들이 수척한 머리를들어 이 노인이 나가는길을 열어주고, 눈속에서 다시 쭈그리고 있을때는 긴 겨울밤이 거의 새 무렵이었다.

그 노인이 이글루를 빠져나오자 어둠속으로 잠겨버렸다. 땅바닥을 쓰는 눈보라가 여인을 감싸고, 어둠이 그녀를 삼켜버렸다. 털바지 이외에는 모두벗어버리고 꼿꼿이 서서 털바지를 끌러놓으니까 불어오는 눈보라가 소리없이 스며들어왔다. 바람은 고통을 못참는 짐승처럼 휭휭거리며 어둠속 여인을 짓밟고 고문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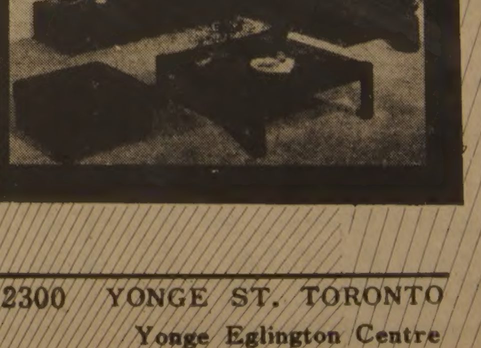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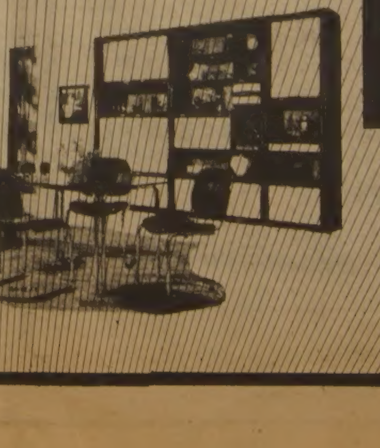
아침이오자 식구중 누구도 여인에대해서 입을열지 않았다. 어린 쿠니이도 보이지않는 할머니의 모습에 대하여 무관심 하였다.

그후 잠깐동안 희미하게 비치는 낮이 되었을때 앙그레얄락은 눈밖으로 혼자 나와 부적이달린 혁대를단단히 조이고 바람을 향하여서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번창하고 잘살던 어린시절에 배워둔 금방죽은 사람에게 고하는 주문을 외웠다. 그때가 3월중순이었다. 이때쯤은 낮이 약간씩 길어지며 대개 겨울내내 계속불던 바람이그치고 몇일후에는 잠잠해진다.

그러나 이 겨울에 바람은 제분수를 잊고 계속심하게 불어서 온통세상이폭풍속에 잠겨있는 듯 했다. 혹시 사냥할 짐승들이 있었다해도 아무도 감히 사냥할 엄두도 못내었다.

(계속)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생활가구·생활예술
ecosys
MODERN FURNITURE
멋과 품위를 자랑하는 가구점
○최고의 품질 ○섬세한디자인 ○저렴한가격
특별세일
가죽제품공장과 쇼룸을 구비하여
특별대매출을 단행합니다.


생활의 풍요와 안락한 가정을창조하는
현대인의 가구점
2300 YONGE ST. TORONTO
Yonge Eglington Centre
486—0397 김만구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應全한報道

原油·原木등 特別공급 合意

全大統領-수하르토 單獨회담 2시간半

◇두 頂上의 微笑 全斗煥 대통령은 25일하오 인도네시아의 메르데카宮으로 수하르토 대통령을방문, 서재에서 단독頂上회담을 했다。장장 2시간 30분에 걸친 양국 頂上의 對坐는 인도네시아와는 물론 아세안과 나아가서는 非同盟 제3세계와도 새로운 관계를 열었다。【文公部제공】

한국선 技術제공 적극協力
印尼、「1·12」「6·5」提議에 共感
오늘 共同聲明발표·발리島 방문

【자카르타26日=尹國炳특파원】 資源과 技術이 만났다。東아시아 제일의 자원보유국인 인도네시아는 26일 技術축적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정부와 資源·기술교류에 합의, 印尼産 原油·原木材, LNG(천연액화가스)의 對韓공급을 특별공급대상圈에 포함시키는 한편 自國內 造船所와 석유화학공업, 중소기업, 농촌 지역공장 시설등을 건설하는데 한국側의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요청했다。

韓·인도네시아 양국은 26일 상오11시(한국시간·이하같음) 全斗煥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간에 가진 2시간반에 걸친 단독頂上회담과 이와 별도로 진행된 양국경제장관 연석회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印尼側의 對韓기술협력 요청과 한국측의 기술협력을 위한 선결조건등을 조정하기 위해 양국이 조속한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李雄熙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全斗煥 대통령은 이날 상오 11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頂上회담을 갖고 韓·인도네시아 양국간의 경제협력증진방안외에 韓·아세안간의 공동협력방안과 한반도및 東南亞를 포함한 東아시아全域의 安保문제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메르데카宮에서 2시간동안 계속된 頂上회담을 통해 양국원수는 東아시아국가간의 경제·기술협력과 平和유지를 위한 구체방안이 아울러 협의됐으며 인도네시아측은 특히 한반도의 安保와 관련, 全斗煥 대통령의 1·12對北제의와 6·5제의를 지지, 찬양하고 南北韓문제에 관한 對話를 통한 평화적방법에 의해 해결돼야한다는 종래의 방침을 거듭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頂上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은 27일하오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全大統領 아세안巡訪 오늘의 日程 (한국시간)
▲상오=頂上간 친선골프
▲하오=僑民리셉션
▲〃 印尼商議회장 주최오찬
▲〃 수하르토내외 告別예방
▲〃 자카르타 림국제공항歡送행사
▲〃 발리 엔구라 라이공항着
▲〃 宿所도착

經濟·國防長官도 別途회담

한편 양국頂上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동안 申秉鉉 부총리, 朴鳳煥 재무부장관, 金善吉 상공부장관등 한국경제 각료들은 위조요 調整相, 수허도 工業相, 푸라위로 무역상등 印尼측경제각료들과 별도의 연석경제각료회의를 열고 韓·印尼양국간의 자원·기술교류방안에 합의했으며 周永福국방장관도 유스프 印尼국방장관과 만나 양국간의 공동현안을 협의했다。全大統領은 頂上회담이 끝난뒤 이날하오 영빈관에서 양국 경제각료들을 위해 午餐을 베풀고 연설을 했다。

이날의 韓·印尼정상회담과 경제각료연석회의등의 합의사항은 全大統領이 자카르타를 출발하기앞서 27일하오 5시 공동성명으로 발표될예정이다。

全大統領은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상오 수행원들과함께 英雄墓地를 참배, 헌화했으며 하오에는 숙소인 영빈관에서 국내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印尼방문의 의의와 성과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全大統領은 또 자카르타市廳과 이곳에서 개최중인 주재박람회를 차례로 방문후 韓宇錫駐印대사가 이날밤 시내 힐튼호텔에서 베푼 리셉션과 대사관저의 만찬에 참석했다。

全大統領은 26일이곳 영빈관에서 하루더 一泊한후 27일 하오 전용기便으로 발리州의 덴파사로 떠나며 출발에 앞서 수하르토 대통령을 고별방문 할예정이다。

頂上회담 全大統領은 26일 상오 盧信永외무장관, 金瓔元비서실장, 金炳薰 의전수석비서관을 대동하고 메르데카宮에 도착, 크리덴셜 홀입구에서 수하르토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다。양국원수는 접견실인 라·롱에서 잠시휴식을 취한후 수하르토 대통령의 서재로 옮겨 단독對坐했는데 이날 2시간반동안 계속된 頂上회담은 통역만 배석한가운데 시종 부드럽고 화기에찬 분위기로 일관 했다고 양측의 측근 소식통들은 말했다。

"韓國人 장래自決權 존중" 수하르토 歡迎辭
"같은歷史·목표에 相助를" 全大統領 만찬答辭

印尼 대통령 만찬 全대통령은 印尼방문 첫날인 25일 밤10시 수하르토 대통령내외가 메르데카宮에서 베푼 환영만찬회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에서 수하르토 印尼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全대통령의 이번방문을 계기로 경제등 여러분야에서 양국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는 주권국가로서 한국정부와 국민이 한국의 장래를위해 취하는 어떤결정도 존중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全대통령은 答辭를 통해 『60년대초의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안정과 발전을 이룩하는데있어 발휘된 수하르토 대통령각하의 위대한 영도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이번방문을통해 인도네시아의 이같은 발전과 성공을 눈으로 직접볼수있게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韓·印尼양국이 같은 東아시아에 위치하며 異民族에의한 植民統治의 아픈경험을 共有한 國으로 『같은역사적경험과 같은 국가적목표를 지닌나라들은 끼리는 相扶相助하는것이 성과를 倍加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美日관계 共同성명 약속履行
소노다日外相

【東京26日=宋孝彬특파원】 소노다 日本외상은 26일 自民黨외교안보합동회의에서 『美日관계가 일본외교의 주축이며 美日공동성명은 조약은 아니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말해 美日공동성명은 구속력이 없다고한 마닐라의 발언을 번복했다。

이날 자민당합동회의는 소노다외상이 『일본외교는 全方位외교다』 『美日공동성명은 구속력이 없다』고 발언하여 美日간의 불신을 자아냈다며 소노다외상을 추궁했다。

丁國會議長 來12일 出國
콜롬비아訪問… 歸路 美도들려

丁來赫 국회의장은 콜롬비아 국회를 공식방문하고 歸路에 미국과 유엔본부를 방문하기위해 오는7월12일 出國한다고 議長室이 26일 발표했다。

丁의장은 루르바이 콜롬비아 하원의장초청으로 오는 7월15일부터 18일까지 콜롬비아를 공식방문, 현지 上·下院지도자및 정부고위관계자들과 만나 양국간의 공동관심사를 협의할 예정이다。

7월臨時國會 召集어려울듯

오는 7월중순께로 예정했던 제108회 임시국회는 丁來赫국회의장이 南美 미국방문에 나서는것을 비롯, 8개의 의원친선협회 6개常委도 7월중순께부터 본격적인 의원외교활동에들어감으로써 사실상 소집이 불가능할것같다。

投機抑制지역 내달 全面解除
부동산景氣浮揚策발표
去來자금출처 調査않기로
國稅廳고시

讓渡稅 특별控除率15%까지 引上
탄력稅率적용 내년9월까지 延長
住宅자금 올下半期에 4百億지원

정부는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켜 일반경기 회복을 촉진키위해 ▲국세청이 고시한 부동산 투기대상 특정지역의 전면해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적용시한 1년연장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율 인상 ▲부동산거래 자금출처조사완화및 ▲주택자금 공급확대등을 내용으로한 올해경기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모든물이4면

이승윤재무부장관은 26일 현재 우리나라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있으나 국민의 기대감에 못미치고 있어 실수요자거래위주의 주택경기육성을 위해 건축경기부양을 통한 관련산업의 경기자극을위해 이같은 진책을 펴게된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지난78년2월과7월 두차례에 걸쳐 국세청이 고시한 특정지역은 오는7월1일부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조치로 투기가 다시 일어날때는 즉시 투기억제를 위한 특정지역을 고시할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법정세율보다 15%포인트를 낮게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적용시한을 오는 9월30일에서 내년9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연간 10% 범위내에서만 인정하던 물가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율을 15%까지 인상, 관계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대로 7월1일부터 소급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같은 조치로 부동산 거래에따른 양도소득세는 25평아파트의 경우 종래보다 일반지역에선 52·4%, 특정지역선 92·3%나 세부담이 줄어드는등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금면의 애로요인은 거의 해결된다고 밝히고 1家口 2住宅에대한 면세는결국 양도소득세를 없애자는것으로 공평과세에 어긋나기때문에 이를 채택할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李장관은 이어 오는 7월1일부터는 상속이나 증여부를 조사하기위한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양도및 취득자에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않도록하며 주택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위해 올하반기중 연립주택등 집단주택의 건설및 매입자금으로 4백억원을 지원하고 국내여신한도 운영에있어서도 주택자금에대한 한도를 전체통화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金周南건설부장관은 민간건설업자들의 소형주택건설의무규정을 폐지, 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을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소형주택건설의무를폐지해서라도 민간부문에 대한 주택자금공급은 25·7평이하 국민주택규모에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주택건설업자중 指定업체가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연건축면적의 50%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같은 소형주택은 주택공사및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부문에서 확대공급케된다。

"教育稅、방위稅型으로"
民韓、教育정책 公開간담회

民韓黨은 26일 중앙당사에서 政策審議會산하 文公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교육정책공개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확보방안, 대학교육의 質的향상방안에 관해 관계전문가들의 토론을 벌였다。

이날 李商庭교수(成均館大)는 교육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현행『租稅減免規制』의 합리화를 통해 세외수입의 증대를 꾀하고 전제한뒤 『그래도 재정이 모자랄경우 直·間接지방세, 關稅등에 고루게 부과하는방위세型의 교육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在範교수(중앙대)는 『교육재정확보책으로 ▲예산을 절감, 교육비로 轉用하고 ▲교육세를 신설하며 ▲정부예산중 일정비율을 교육비로 책정해야 확보가능하다고 밝히고 『교육재정의 징수방법과 부담의 공평화에 따라 고정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社会漫評

"네 이놈…"

地平線

파리의 특징은 건축양식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모두가 화려한 바로크양식일색이다。「영원의 도시」로마와 비교할수는 없지만, 현대와 중세가 뒤섞여 있는 런던과도 비교할수 없다。그것은 대부분이 19세기와 20세기초에 걸쳐 식민지경영에서 들어오는 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나폴레옹과 드·골의 호령에 맞춰서 행진하던 프랑스의 전통이 파리의 거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있는 셈이다。

▼드·골이 자기몸에 맞춰서 만들어놓은 소위 「드·골헌법」에 따라 파리에 좌파정부가 들어섰다。프랑스와·미테랑은 드·골이후 처음으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은 스타다。그 미테랑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패배를 맛본 공산당에게 4개의 각료자리를 내줬다。서방측 군사동맹의 심장부의 하나에 공산당 각료가 들어선데 대해 벌써부터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은 전통적으로 약4분의 1의 지지표를 갖고있었다。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마르셰 공산당수는 겨우 15·3%를 얻었다。국회의원선거 1차투표에서는 16·1%였다。그래서 지난 국회때 86개였던 공산당의석은 약절반이 떨어져나가 43개가 됐다。거물급도 상당수 떨어져 나갔다。프랑스 공산당의 제2인자인 피테르망을 비롯해서 정치국의 거물인 로랑, 취렝, 국제문제 전문가 그르메, 당기관지 편집인 르로와등이다。

▼새내각을 구성하기 전에 세이송외상은 『알쏭달쏭한 연립내각은있을수없다』고 말했었다。미테랑 대통령의 기본정책에 맞지않는 사람은 한사람도 용납되지않을 것이라는 장담이었다。아닌게 아니라 공산당은 4개의 장관자리를 차지하기위해 손을 들고 『항복』한 꼴이됐다。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요구하고, 폴란드로부터 손을떼라는 요구에 동의했다。소련의 중거리미사일 유럽배치를 비난하고, 사회당의 「제한된 국유화」에 동의했다。

▼사회당은 선거때 공산당과 연합전선을편 빚을 4개의 장관자리로 갚은 셈이다。그러나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와의 군사협력체제에 대해 미국은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고있다。프랑스측은 이에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정치적 보장』을 하지않을까 생각된다。드·골이 만들어놓은 「내각」이란 44명이나 되는 일종의 위원회나 다름없다。운수, 행정개혁, 보건, 직업훈련등을 맡은 각료가 군사기밀에 참여할수는 없다는것이다。게다가 47년 사회당의 라마디에수상이 공산당을 몰아냈던일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일부에서는 보고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31.5
은 : 온스당 US 8.56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SUREKILLER
바퀴벌레, 개미, 벼룩, 좀벌레등
각종벌레.
Powder or Spray적은비용. 사용 간편. 사전예방용. 100% 효과보장.
각 한국식품 판매처 또는 Ont. 전역 공급 Retail store경영하시는분 주문 해주시오.
☎: 255-5849, 255-0713

BRITANNICA
NOW 30 VOLUMES!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용목배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SUN... ...SUN...ROOFS!
MOON'S LETS THE SUN SHINE IN!...
WINDSHIELDS
INSTALLED • ALL MAKES
INSURANCE CLAIMS
SUN ROOFS
FROM ONLY $140.00 INSTALLED
GRAND OPENING SPECIALS
VINYL ROOFS ONLY $100.00
Car Upholstery and Steam Cleaning Available.
MOON'S AUTO TRIM & GLASS LTD.
638-0656
12 LE PAGE CRT. UNIT 4 DOWNSVIEW
정해문
Finch & Keele

각종 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F.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FURS
Paul Magder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영업시간
: MON. TUES. WED. SAT. 9:30-6:00
THURS. FRI. 9:30-9:00
●신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MRS. PARK
202 SPADINA AVE. ☎: 363-6077

오가는 祝杯속에 友誼담고

頂上회담

○…26일 상오 印尼 단독頂上회담은 시종 화기애애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상오 11시5분(이하한국시간) 메르데카宮안 대통령서재에서 全斗煥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통역두사람을 사이에 두고 앉아 단독회담을 시작.

본격적인 의제가 토의되기 직전 약1분동안의 포토·세션(사진찍는 시간)만 있었을뿐 양국원수는 약2시간동안 세계평화와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위해 全대통령은 상오 10시50분 영웅묘지 참배를 끝낸뒤 숙소에서 용차로 메르데카궁에 도착, 현관에서 수하르토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다.

감색 싱글차림의 全대통령과 엷은 밤색 싱글차림의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미 舊面의 친숙한 표정으로 우정어린 악수를 나누었고 단독 회담에 앞서 접견실인 제파라·룸에서 장관급 이상 공식수행원이 배석한 가운데 약 10분간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어젯밤 편안하게 잘쉬었다』면서 『어제저녁 너무 시원해서 에어컨을 끄고 잤는데 인도네시아에 석유가 많이 나오지만 에너지를 절약해 주었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일었다.

이에따라 수하르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고 대답.

全대통령은 또 『인도네시아의 모든 관계자들이 친절하고 신경을 많이 써줘 고맙다』고 말하고 『오늘 아침에도 영웅묘지에 가면서 보니 많은 시민이 환영하는 것을 보았다』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친절한 환영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全大統領 아세안巡訪 動靜

자카르타 第2日

親舊나라 無窮한 發展을

"石油많지만 밤엔 에어콘껐다" 座中웃음

民俗공연 관람후 舞臺위올라 紀念촬영도

영웅墓地

○…全斗煥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 이틀째인 26일상오 자카르타시내 가리바다街에 있는 영웅묘지를 참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한국시간 10시20분 인도네시아의 독립유공자등이 묻혀있는 영웅묘지 입구에 도착, 노만·사소노 자카르타지역 衛戍사령관의 영접을 받고 악수를 교환했다.

全대통령은 16명씩 두줄로 도열한 의장대 사이를 지나 묘지 정문에 서서 진혼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웅탑을 향해 경례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사소노사령관의 안내로 붉은 카피트가 깔린 영웅탑까지 2백여m를 걸어가 헌화하고 1분간 묵념을 올린 뒤 기념관에 들러 방명록에 한글로 서명했다.

全대통령은 영웅묘지를 떠나기위해 승용차에 오르면서 묘지입구 건너편거리에 나온 1백여명의 자카르타 시민들에게 오른손을 들어 인사했다.

市街친선무드

○…全斗煥 대통령내외를 맞은 자카르타市 거리는 환영무드로 가득.

全대통령내외가 묵고있는 영빈관 위스마·네가라궁 앞거리에는 양국 대통령내외의 大型초상화가 나란히 세워졌고 시내 중심가에도 곳곳에 천연색 대형초상화가 세워져 있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全대통령 내외가 묵은 영빈관과 인접한 메르데카궁 뜰을비롯 가로에는 형형색색의 대형 5색등이 밝혀져 남국의 밤을 수놓았다.

한편 높이 20여m의 가로등에는 길게 늘어뜨린 5색천이 걸렸고 곳곳에 인도네시아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게양돼 양국의 친선무드를 고조시키고 있다.

네가라宮 晩餐

○…수하르토 대통령내외가 全斗煥 대통령내외를 위해 25일저녁 10시25분 네가라宮에서 베푼 만찬엔 韓國측 공식수행원을 비롯, 인도네시아의 3부요인, 駐인도네시아 외교사절등 1백50여명이 참석, 두나라의 발전과 협력증진을 다짐하는 축배를 들음으로써 韓·印尼우호무드가 절정에 이르렀다.

헤드테이블엔 全대통령내외와 수하르토 대통령내외를 중심으로 말리크부통령내외 申秉鉉부총리 盧信永外務 周永福國防 朴鳳煥動資部장관등이 자리해 상대방인사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음의 꽃을 피웠는데 만찬 메뉴는 메추리알수프 쇠고기숯불구이 버섯을 곁들인 소간요리등 인도네시아식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무렵 수하르토 대통령이 일어나 만찬사를 하고 全대통령내외의 건승과 대한민국의 무궁한발전을 비는 축배를 제의하자 장내엔 군악대가 연주하는애국가가장엄하게울려퍼졌다.

이어 全대통령이 답사와함께 수하르토 대통령및 인도네시아를위한 축배를 제의, 인도네시아국가가 연주됐으며 두나라 정상내외는 만면에 웃음을띠고 샴페인잔을높이들어 건배했다.

만찬이 끝난뒤 옆에있는 홀에서 인도네시아의 민속무용과 민요로 엮어진 민속공연이 55분동안 펼쳐졌는데 남녀혼성6인조 보컬앙상블이 기타반주로 우리민요 아리랑을 부르자 全대통령내외는 한층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全대통령내외는 民俗공연이 끝난뒤 수하르토대통령의 안내로 무대위에 올라가 30여명의 공연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치하하고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全대통령내외는 수하르토대통령내외와 함께 영빈관앞까지 나란히 걸어가 현관앞에서 작별, 아세안 순방의 첫날밤을 보냈다.

全대통령내외는 이에앞서 만찬장에 도착한직후 수하르토 대통령내외와 자필서명을 한 사진과 선물을 교환했는데 수하르토 대통령은 대형 원형 목각탁자와 手製모형배를, 全대통령은 十長生을 수놓은 두폭병풍을 선물했다.

副統領내외 禮訪

○…全斗煥 대통령은 25일 저녁9시30분 숙소인 영빈관 위스마·네가라궁 6층 인도네시아살롱에서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함께 아담·말리크 인도네시아부통령내외의 예방을받고 16분동안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韓國정부의 「1·12」 「6·5」 제의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는 北韓을 궁지에 몰아넣기위한 전략적 차원이나 對外선전을 위한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우리민족의 평화를 유지하기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全대통령은 『만약 한반도내에서 전쟁이 일어날경우에는 세계평화를 해치게되는 것』이라고말했다.

말리크부통령은 『몇주전에 北韓의 부수상이 다녀갔는데 그때 韓國정부의 1·12 6·5제의등을 수락토록 종용한 바있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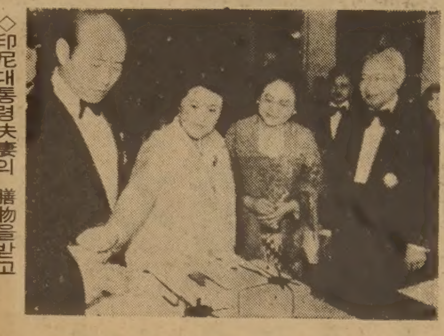
이자리에는 申秉鉉부총리·盧信永외무·周永福국방·朴鳳煥동자부장관과 金璟元청와대비서실장·鄭東鎬경호실장·韓宇錫駐印尼대사등이 배석했다.

한편 영부인 李여사는 이날 말리크부통령부인과 별도로 만나 영어로 가족얘기등을 나누었다.

【자카르타=尹國炳특파원】

◇韓·印尼 두頂上의乾杯 全斗煥 대통령이 25일밤 자카르타의 네가라宮에서 베풀어진만찬에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과 건배하고있다. 【자카르타25日 AP電送=聯合】

◇영웅墓地에 獻花 全斗煥 대통령이 영웅묘지에 獻花한뒤 경례하고있다. 【KBS·TV촬영】



◇印尼대통령夫妻의 膳物을받고 영부인 李順子여사가 25일 연회에앞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부처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살펴보고있다. 【자카르타25日 UPI電送=聯合】

◇令夫人 不具兒再活院 방문 全斗煥 대통령의 부인 李順子여사가 26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불구아동재활병원을 방문, 휠체어에 타고있는 한소녀와 악수를 나누고있다. 【자카르타26日 UPI電送=聯合】

全대통령, 經濟閣僚회의 演說 (요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관계는 여러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통상증대는 현저하여 80년도 交易量은 8억5천만달러에 이르렀읍니다. 그리고 경제협력면에서도 油田과 液化천연가스의 공동개발뿐아니라 합작투자와 일부 경제개발계획에대한 공동참여등 여러분야에서 괄목할발전이 계속되고있읍니다.

본인은 아시아의 모든 개발도상국들이함께 번영하고 따라서 모든나라의 국민들이 똑같이, 보다 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을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나라만의 번영은 여타국가들한테 상대적인 희생을 가져다줄뿐 아니라 경제적인 불균형이야말로 평화를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기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아세안 5개국과는 물론, 이지역의 모든나라들과 다방면에 걸친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확대하여 나갈 작정입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이같은 협력확대에 필요한 人力과 기술, 그리고 자연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어제 수하르토 대통령각하가 주최한 만찬석상에서 태평양시대의 到來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했었읍니다. 만일에 우리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각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선진국이건 개발도상국이건 그리고 정치적 이념의 차이점을 초월하여 태평양연안에 위치한 모든나라들은 이같은 협력체제에 참여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위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해결해야할 난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태평양시대가 반드시 到來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동협력관계를 발전시켜가야 할것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의 협력관계도 본인은 어느 한쪽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번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국은 동반자라는 공동인식하에서 서로가 가지고있는 고유한 잠재력을 결합시켜 양국이 추구하고있는 부강하고 풍요한 새국가건설에 이바지할 수있을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人事異動

法務部 ▲교정기획관 金銘宇(법무연수원교수부장) ▲법무연수원 교수부장 朴道亨(교정기획관) ▲법무연수원연구부장 鄭義憲(총무과장) (27日字)

문교부 ▲大邱직할시교위 학무국장 李相悅(慶北師大附高교장) ▲〃관리국장 金泰眞(慶北大교무과장) ▲仁川직할시교위학무국장 韓哲圭(수성고교교장) ▲〃관리국장 尹世完(중앙교육연구원) ▲서울農大庶務課長 韓光敎(서울大도서관열람과장) (7月1日字)

交通部 ▲도시교통국장 姜東錫(관광지도국장) ▲관광지도국장 李東熙(부산지방항공관리국장) ▲부산지방항공관리국장 鄭炳號 (27日字)

국민당 ▲중앙위청년분과위원장 鄭佑三 ▲〃부위원장 韓義洙·金鍾千 (26日字)

產業銀行 ▲理事 姜永福(産業金融1부장) (27日字)

證券去來所 ▲理事 安永信(市場部長) ▲許埈(企劃部長) (27日字)

韓國織維織物 輸出組合 ▲副理事長 金成洛(전韓國織物原糸輸出組合 副理事長) (26日字)

議員 14개班 해외에 派遣

국회는 26일 議員外交활동 운영협의회와 各黨총무회담을 잇달아열고 의원친선협회 8개반과 常任委6개반등 모두 14개팀을 9월정기국회이전에 해외에 파견, 의원외교활동을 벌이기로하고 구체적인 訪問國과 파견팀을 결정했다.

社說

投機·暴利 再燃없도록

—부동산景氣浮揚에 유의점 많다

政府는 주택경기를 높이기위한 一連의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26일 李承潤財務部長官과 金周南建設部長官이 밝힌 새政策은 이미 보도된대로 ①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적용 시한연장, 특별공제한도율 引上및특정지역해제 ②주택자금공급확대 ③지정주택건설업자의 소형주택건설의무해제등 획기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景氣浮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산업이 近年에 침체한 사실은 통계숫자에 잘 반영되고 있다. 즉 지난76년부터 새로 창설한 國內건설(건축과土木) 發注規模통계에 의하면 79년을 최고수준으로하여 작년에는 6%나 줄었다. 또건축허가면적의 경우는 78년을 고비로하여 79년에는 14%, 그리고 작년에는 다시 18%나 각각 줄어져 지난2년간에 실로 30%나 침체한것이었다. 商業用 公共用및 敎育用 건물도포함하는 건축허가면적중 大宗(80%內外)을 차지하는 住宅건축허가면적의 추이를 보면 이경우 역시 78년을피크로하여 지난 2년간 계속 줄어든결과 작년에는 78년보다는 38%나 위축되었다. 경기부양에 큰 추진역할을하는 건축산업중 그 大宗을 차지하는 住宅건축을 촉진하기위한 시책의 전개는 그래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새로운 시책중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기위한 조처는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을 개정하여야 하는만큼 이것을 당국의 약속대로 「빠른 시일안」에 실시하자면 이를 위한 臨時國會가 열려야 할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대로 無住宅市民들이 내집을 마련케하는데는 무엇보다 앞서 더 많은 집을 지어야한다. 그러자면 첫째로 집을 지을 땅마련이 서야하며 둘째로 건축업자가 집을짓건 또는 집없는개인이 스스로짓건간에 洋灰·철근·材木·유리·모래·자갈·各種 內裝材·난방용재·전기·수도등의 자재와 건축기술人力을 필요로하며 세째로 이들 人的物的자원을 동원하기위한 자금마련이 뒤따라야하고 끝으로 지어놓은집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도록 적은 마찰속에서 入住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금융상의 뒷받침이 竝行하여야한다.

당국이 발표한 주택경기부양대책은 住地와 住宅의賣買를 촉진하며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마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주택건축이 앞으로 활발해질경우 지금 살펴본 각종 건축용 자재의 공급을늘리고 그 값을 安定시키는 일에 정부와 업자들이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이들 資材를 제조생산하거나 판매하는 業者들은 모처럼의 새로운 시책을 기회로삼아 폭리를 탐내는 갖가지 行爲를 해서는 안된다.

그뿐아니라 土地와 住宅의賣買에 따른稅金과 料率이 줄어든 조건을 惡用하여 不動産투기를 再燃한다면 새시책의 좋은 成果는 그만큼 줄어들고 副作用만 두드러져 일을 잡치고 말것이다. 새政策이 노리는것은 주택붐을 일으켜 한편으로 不足住宅數를 줄이고 「국민경제를 活性化하려는데 있는것이다. 이것을 모든 관계자들이 투기와 謀利의 방편으로 惡用할때는 이 두가지 목표는 빗나가고야 말것임을명심하지않으면안된다.

이에 관하여 言及하고자하는것은 住宅의 설계와 施工에서 더욱 더한연구를 통한 개선이 크게촉구된다는 사실이다. 그와같은 연구는 ①되도록 熱源을 덜 쓰며 ②組立式과같이 工事과정을 더욱 단순·간편하게하며 ③같은 면적인경우 현재까지의 주택에 비하여 더욱 우리들의 生活에 適合하게끔 房배치와 구조를 개량하며 ④각종 건축자재의 品質과 규격을 개선하는것을主題로 삼아야 할일이다.

그간 날림공사와 不實한 耐久材때문에 入住者들을 울린 사례들이 非一非再하였다. 밖으로 훌륭한 건축기술과 施工으로 세계를향하여 나라의名聲을 올리듯이 이런 일에서안으로도 알찬 주택을 지어서 우리들을 흐뭇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밝은環境과 善導를

—白書에 보는 青少年問題 심각하다

우리 겨레의 「희망의 寄託處」이며 「내일의 주인공」이어야할 자라나는 世代속에 날로 심각한 문제상황이 노정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국무총리企劃調整室은 81년도 「青少年白書」를 발표하였다.

白書는 「급속한 産業化와 都市化, 價値觀의 혼란, 국민生活樣式의 변화등」에 青少年문제의 어려움이 있다고하면서, 青少年의 指導·育成·保護에관한 정부의 작년도 施策추진상황과 금년도 계획을 다루었다.

現實진단에서 가장 주목되는 통계로는 青少年범죄가 80년도에 전년對比 9·2%나 늘어났다는 비관적 자료를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밝은 측면으로는 체격이나 체력의 急成長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번 白書의 내용에 新味를 더한것은 「새時代의 青少年像」 「幼兒교육의 진흥」 「餘暇善用」 「장애자의 해 事業」등의 취급이다. 하나 青少年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민거리와 그들의 意識構造에 대한 조사및 방명이 미흡하며 또 民間단체와의 협조체제에 관련된 課題설정이 부족한 느낌이다. 총체적으로 社會病理현상에 대한 깊이있는 分析이 아쉽다고 생각된다.

白書에 보는 문제점들의 진단은 세련성은 평가되어야 하겠으며 애당초 청소년 문제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青少年대책위원회에만 떠맡길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본시 인간의 社會的性格의 형성은 家庭과 學校와 社會에 걸친 三位一體교육을 기축으로 삼은 環境適應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있다. 문제는 環境에 있으니 잡다한 유혹要因을 봉쇄하고 價値기준을 바로잡으며 未來指向的인 꿈과 浪漫을 키워주어야 하겠다는 뜻이다. 기성世代의 공동관심사로서 슬기로운 협동동작을 다짐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青少年문제는 지극히 우려되는 社會逸脫과 犯法非行의 증가로 점철되어있다. 특히 가출이요, 사소한일에 연유하는 자살이 잇따르는 동안, 특히 늘어나는 青少年범죄의 흉악화와 그低齡化가 두드러진 형편이다.

이 원인에 관해서는 克己·인내·희생·봉사의 본보기가 있기는해도 매우적은데다가 기성世代의 무시나 무관심으로말미암은 불안감속에 충동성향이 배태된다는 분석이 자주 지적된다. 환언한다면 올바른생활을 지탱해주는뿌리가 박약한 가운데 「행동적 虛無主義」가 만연되어있다는 풀이이다.

이러한 局面을 고려에 넣는다면 家庭에서의 사랑과對話, 學校에서의 교사의 영향력 증강을위한조건형성, 社會교육의 개선과 消費環境의 淨化등이 모두 촉구되게 마련이다.

하나 복잡하고 다방면의 요청중에서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유난히 강조될것은 歸屬意識을 부여할 當爲性이다. 물론 그 歸屬意識은 차가운 自由放任에 대한 반성위에 재정비되어야 하겠으나 다른한편 강압수단으로는 전혀 기대할바못된다.

나아가서 기성世代는 青少年들이 적응해야하는 오늘의 環境형성에 책임이 있다. 세칭 「不信風潮」와 수단방법 불문의 拜金·享樂風潮를 불식하지 않는채 일부 青少年들의 탈선만을 나무랄수는 없다. 부언한다면 일부 사람들이 거론하는 「世代交替」論도 青少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視角에서 省察돼야 할것이라고 믿는다. 어른들에 대한 不信과 傳承될것에 대한 반항을 조장하면서 歸屬意識을 흐려지게 하기 때문이다.

文明과 近代化의 으뜸가는 徵表중의 하나는 青少年들에 대한 보다많은 배려라고 설명된다. 나아가서 희망있는 安定된 社會는 逸脫·非行이 적고 青少年들이 歸屬意識속에 내일을 믿으며 오늘을 착실히 꾸려나가는 경우를 말한다. 범국민적 관심사로 자라나는 世代들을 善導하는데 모자람이 없어야 할때다. 고독과 유혹, 허무와 좌절만의 빗나간 표현을 극소화하자는 것이다.

政局往來

"公害문제도 싸게 해결하려들면 비지떡"

◆핫·라인 열어놓고 수시로보고

南惠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아세안 5개국 巡訪에 따라 집무실과 서울 三淸洞公館에 연결된 핫·라인전화를 개방해 놓고 중요한 문제에 관해 수시로 보고를 하는 체제로 대비할뿐 평소와 다름없이 執務.

26일도 南총리는 임명장수여, 국내외인사접견, 국무회의주재등 平素와 별다름 없는 日程을 보냈고 하오엔 대통령배국제축구대회 폐회식에 참석했다.

南총리는 또 이날 상오11시 서울城東區獨室대교입구에서 열린 江邊1路개통식에 참석, 朴英秀서울시장의 안내로 3·5㎞ 새도로를 試走하기도.

개통식에 이어 있은 서울시관계자들과의 午餐에서 南총리는 下水道등 신설문제에 언급, 『교육도 그렇지만 公害문제는 싸게 해결하려들면 「비지떡」이라고 비유하면서 『시민의 부담이 조금은 늘더라도 漢江의 오염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결국은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것』이라고강조. 南총리는 또 『서울에 河口堰을 만든다는 계획도 좋은 발想』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이젠 운하나 沿岸水路를 이용한 海運교통에 눈을돌려야 할때』라고 지적했다.

◆가야할필요성 없으면 못나가

해외시찰 티킷을 따내려는 각常委와 친선협회의 경쟁은 26일 국회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와 각당총무회담에서 6개常委와 8개 협회를 지정함으로써 一段落.

李鍾贊국회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측면 지원하고 議案에 관한 입법참고자료수집의 필요성과 현행제도나 법규와 관련, 他國의 例를 시찰할 필요가 있는 常委에 우선권을 주었다』고 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금년에 탈락된 나머지 常任委는 내년에 나가느냐』는 질문에 『꼭 가야할 필요성이 없으면 내년이 아니라 그뒤에도 나갈수 없다』고 못박은후 『그러나 친선협회의 케이스도 있으니 어느의원이나 4년안에 최소한 한번씩은 나가게 될 것』이라고 附言.

◆大衆食 들며 黨政協議하기로

民正黨측에서 처음으로 주최하여 오는30일 열리는 黨政協議會는 오늘날 정부측 인사들이 중앙당사에 도착하여 회의를 한뒤 9층회의실에서 만찬을 나누는식으로 진행할 계획.

民正黨은 정부측 인사들과의 만찬을 호텔이나 음식점등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나 시설이 未備하지만 黨舍에서 하는게 좋겠다는 李載瀅대표위원의 의견에 따라 회의실에 만찬을 마련키로 한것.

음식도 『설렁탕이나 비빔밥정도로 조촐하게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는 李대표의 지시에 따라 호텔등에 注文하지 않고 黨舍부근의 일반대중음식점에서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 黨政협의회는 일방적으로 부족얘기만 듣던 과거의 회의와는 달리 民正黨측에서 政策代案을 많이 제시하여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할것이라고.

◆柳총재, 멕시코議會간부와 요담

中南美巡訪旅程의 첫기착지인 멕시코에 도착한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25일하오2시(한국시간 26일상오 5시) 中東元대사의 안내로 감보아 上院의장을 예방하고 양국간의 대강화문제등을 협의.

유와 감보아 의장은 이날 『얼마전 방한했던 우리의원들에게 보여준 韓國민의 환대에 감사한다. 양국간에 계속적인 우호증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후 柳총재에게 멕시코의 民譜帖을 선물했다.

柳총재는 『民韓黨은 정책적으로 與黨과 대결하고있지만 理念과主義는 같은 보수정당』이라고 설명하고 양국간의 政經협력을 요망했다.

한하원 인사들은 또 소바르스 下院외교위원장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 『外交柳총재는 전화통해보니 기다렸던 비가 내려 모내기를 하고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기뻐하면서 멕시코의 강우량에 관심을 표시했다.

◇멕시코를 방문중인 柳致松民韓黨총재가 25일 멕시코 시티에서 아예안드로·소바르스 하원외교위원장 ㊨을 만나고 있다. 【멕시코시티26日 UPI電送=聯合】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일간발행 기념

한국일보사가 자랑스럽게
내놓는 이 쇼는 토론토
사상 가장 우수한 쇼라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와서 보시고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쇼쇼 교포위문대공연

●최고의 인기 정상가수 총출연 ●최고의 가수진 ●최고의 캄보밴드 ●최고의 코메디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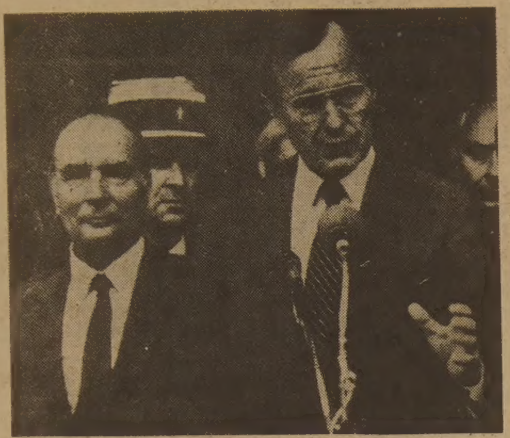
1981년 7월3일(금) 7:30 P. M.
CENTRAL TECHNICAL SCHOOL 725 Bathurst

시나이 平和維持軍 창설

美·埃·이스라엘 3國、豫備協定 합의

美、越南戰이후 첫派兵

協定發效되면 이스라엘 撤軍키로



◇우려하는 視線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부시美부통령이 25일 프랑스각료로 공산당원이 등용된데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AP】

【카이로·워싱턴25日AP=聯合】 중동평화달성을 위한 캠프데이비드 협정의 당사국인 美·이집트·이스라엘 3국은 25일 카이로에서 시나이 반도에 주둔 다국적평화유지군의 창설을 위한 예비협정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은 베트남戰 종식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새로운 미국군을 파병하게 됐다.

이들 3개국 협상대표들은 이날 6개월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마무리지는 공동성명을 통해 시나이 주둔 평화유지군창설을 위한 예비협정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협정이 각국정부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현재 시나이반도의 약20%지역을 점령중인 이스라엘군은 점령지로부터 완전철수하게된다。

이집트의 유력지 알·아람紙는 미국이외에 호주·아르헨티나·우루과이·에콰도르및 뉴질랜드등이 새로 창설되는 평화유지군에 참여할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워싱턴의 데이비드·패시지 국무성부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이 평화유지군창설을 위해 1개 대대병력과 지원부대등 약1천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상당수의 다른 국가들도 시나이 평화유지군에 참여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패시지 부대변인은 이 평화유지군은 약3천병력규모의 3개 전투대대와 통신및 항공지원부대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평화유지군의주둔 비용은 美·이집트·이스라엘 3국이 동일하게 분담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억달러이상소요될것으로 보이는 창설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협상소식통들은 평화유지군의 주둔비용이 매년 6천만~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시나이주둔평화유지군의창설은 지난 78년 캠프데이비드협정부속문서에서 당시카터 대통령에 의해 약속됐던 것인데 미군이 이 시나이평화유지군의 주축을 이루게되므로 인해 미국은 최초로 중동지역에 지상군을 주둔시키게 됐다。

"美우려는 佛이해못한誤判"

세이송外相、共產黨入閣문제에言及

【파리25日AP=聯合】 공산당각료의 프랑스정부입각으로 美佛관계가 영향을 받을지모른다고 지적한 미국의 경고는 프랑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오판에서 나온것이라고 클로드·세이송 프랑스외상이 25일 말했다。

세이송外相은 프랑스사회당이 공산당과의 관계에 있어 대단히 강경하며 프랑스와·미테랑 대통령이 언제든지 각료의 임면권을 행사할 수있는 완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공산당 각료가 나토군사기밀토의에서 제외될것이라고 미테랑 대통령이 레이건미 대통령에게 보장했다는 미국 ABC·TV방송 보도를 부인했다。

美、對이 F.16機공급再開

原子爐폭격후 中斷…總選직후 4臺引渡

【예루살렘25日聯合=聯合】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라크핵원자로 폭격에 뒤이어 중단됐던 美製F16전투기 4대의 對이스라엘공급을 오는30일의 이스라엘총선직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스라엘의 한 신문이 25일 美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英字紙 예루살렘·포스트는 워싱턴발 기사로 리처드·앨런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지난22일 白堊館에서 사적으로 접견한 美國내 유태인지도자들에게 그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앨런보좌관은 이자리에서 유태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발언내용이 누설될경우 그들과의 사적인 회담을 더 이상 갖지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美國의 對이스라엘항공기 인도는 이스라엘군기들이 지난3일 이라크원자로를 폭격한후 중단되었다。

"占領地 계속장악"

베긴首相밝혀

【텔아비브25日AP=聯合】 메나헴·베긴이스라엘수상은 총선을 5일앞둔 25일 야당인 勞動黨의 시몬·페레즈당수와 벌인 TV토론에서 요르단江 西岸의 점령지역을계속 장악하고 유태인정착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베긴수상과 페레즈당수는 이날 40분간에걸친 TV토론에서 이스라엘의 이라크원자로 폭격과팔레스타인 자치협상、시리아미사일문제등에관해날카로운 의견대립을 보였다。

페레즈당수는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원자로를 공격해야한다는데 이론은없으나 방법상의 문제에 차이가있다고 지적하면서 베긴수상의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의 오류로 이스라엘의 국고는 바닥날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고립을 면치못했다고 공격했다。

華國鋒黨主席유지

【北京25日AP=聯合】 중공당주석 華國鋒은 최근광범위하게 나돌고있는 그의 사임설에도 불구하고 아직 黨주석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중공의 한 공식대변인이 25일 밝혔다。

이대변인은 이날 華의사임여부를 묻는 기자들의질문에 華가 아직 주석에 머물러있다고 답변했는데 최근北京주재 외국특파원들은 華가 당중앙위제6차전체회의(6中全會) 준비회의의개막과 함께 이미 당주석직에서 사임했다고 보도했었다。

黃華、印度도착

【뉴델리26日AP=聯合】 남아시아 3개국순방에 나선 黃華중공부수상겸 외상은 26일 새벽 첫방문국인 인도에 도착、지난62년 국경충돌이래 대치해온 양국간의 화해를 모색하기위한 5일간의 공식방문에 들어섰다。

對美관계 全面再考 촉구

이라크 原子爐폭격 後援이유

페르시아灣지역 新聞들

【매나마(바레인)25日AP=聯合】 페르시아灣지역 아랍산유국신문들은 25일 일제히 레이건美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라크核원자로공습을 후원했다고 규탄하고 아랍지도자들에게 對美유대관계를 전면 재고할것을 촉구했다。

아랍신문들은 이날 1면머리기사와 사설을 통해 美國이 對사우디아라비아 조기경보기(AWACS)판매를 철회한뒤 이미 6개월전에 이라크核원자로에 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제공하는등 도저히 묵과할수없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지금이야말로 對美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21世紀엔 太平洋時代가 온다"

美兩院합동경제위報告 "大西洋과 비슷한 共同體형성"

【워싱턴26日AP=聯合】 美下院합동경제위원회의 한보고서는 北美와 유럽을 연결시키고있는 대서양공동체와 비슷한 현대의 태평양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고 시사했다。

24일 공개된 이보고서는 중공、일본、東南亞를 중심으로한 태평양지역은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活性이 강한 지역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지역이 미국에 미치는 중요성은 미국과 서구와의 전통적인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개항목 1백50페이지에 달하는 이보고서에서 카터前美행정부의 육군성차관이었던 로이·워너는 이지역국가들이 분쟁을 피하고 합의점을 얻기위해 노력한다면 다음世紀를 「太平洋의世紀」로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될것이라고 말하고 그선택은 혼란상태를 지속할것이냐 지역조정을위해 노력할것이냐 둘중의 하나가운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1945년이래 일본에 공격용 군사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주변국가들의 군비증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말해 일본의 방위력증강을 요구하는 대부분의미국인들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전국무성 동아시아담당부차관보 로버트·바네트씨는 태평양과 대서양 공동체의 차이점을 다음과같이 지적했다。

대서양 공동체는 서로 인접해있고 미국인들은 대부분 유럽출신들이다。 반면에 태평양지역 국가들은 대양을두고 서로 떨어져있어 인종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대서양 공동체는 법、종교、언어등에서 하나의 문화적유산을 공유하고 있는데비해 태평양지역은 그러한 공유유산을 갖고있지 않다。

미·태평양지역간의 교역량은 미·서구 교역량을 넘고있다。

그러나 이자료만가지고 태평양지역을 공동체로 부를수 있는기준、다양성、일관성、취약성등에관해 정의를 내리기에는 불충분하다。

바네트씨는 태평양지역에서 추구하는 목표중 거의 일치를 보고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즉 초강대국들은 군사력의 균형을유지하고 핵무기확산을 저지해야한다。 군사시설은 최소한 경비만지출을 유지해야하며 외국투자및 기술이전을 가로막는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해야한다。 지역내 인적교류가 더욱 용이해야하며 입장이 상충되는 나라들이 상호협의·협조해야한다。

바네트씨는 마지막 항목인 분쟁시의 상호협력체제는 미국과 아시아국가간에 심각한견해차이를 일으킬 수있다고말한다。

이란 쿠르드族、「反革命」가담

바니·사드르 支持내세워

【베이루트25日AP=聯合】 북서부이란 쿠르디스탄省등지의 자치권을 요구하며 반정투쟁을 벌여온 소수민족인 쿠르드족게릴라들이 최근 바니·사드르前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무자헤딘·할크등 좌익단체들의「反革命활동」에 가세했다고 테헤란당국자들이 25일말했다。

이 쿠르드족 게릴라들은 마하바드에서 한지방유지의 장례행렬을 공격하며 조객6명을 숨지게하고 다른22명을 부상케한것으로 보도됐다。

이란당국은 최근 反혁명혐의로 대통령직에서 해임된바니·사드르씨의 행방이 연15일째 묘연한가운데 25일 남부의 반다르 아바스市에서바니·사드르지지자 1명을 처형함으로써 바니·사드르지지파에 대한 검거선풍개시이래 처형된 사람들의 수는 44명으로 불어났다。

이와함께 회교공화당기관지인 자무리·이슬라미는 바니·사드르씨의 법률고문인마수드·마누체리씨가 24일 테헤란의 메라바드 공항에서프랑크푸르트行 여객기를 탑승하기직전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테헤란의 한 일간지인 소베·아자데간은 바니·사드르前 대통령의 재임기간중 과오에 언급하면서 그가 美人質석방협상이 진행될 당시회교지도자인 호메이니옹과 의회·정부등의 사전승인없이 카터前美 대통령과 한 비밀계약을 맺었었다고 보도했다。

油價할증 撤廢고려

쿠웨이트、引下안해

【쿠웨이트25日UPI=聯合】 쿠웨이트는 현재의 원유공시가를 인하하지는 않을것이나 할증료철폐는 고려할수도 있다고 알리·할리파·알·사바 쿠웨이트석유상이 25일 밝혔다。

알·사바 석유상은 할증료문제에 관해 쿠웨이트석유시장조사과의 연구결과「필요하다고 판단되면」할증료철폐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웨이트는 배럴당35.50달러의 공시가에 3~4달러씩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다정한 고래와 돌고래 개와 고양이처럼 원수로 알려져 온 고래와 돌고래가 美플로리다州의 시월드(해상세계)에서 서로 코를 비비고 핥으면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키스턴=聯合】

海外토픽

警察무기휴대 반대

★찰즈 母親봉변불구

영국의 찰즈황태자는 최근 모친 엘리자베스여왕에 대한 피한의 공포탄발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영국경찰이 앞으로도 계속 무기를 휴대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뉴욕방문시에는 親에이레계 시위대의 공격에대비、무장경찰의 삼엄한 경호를 받아야했던 찰즈황태자는 다른나라처럼 경찰이 무장해야 일을 잘할수 있겠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영국의비무장경찰이 앞으로도 계속 훌륭하고 친절하게 임무를수행하는것이 좋겠다고밝혔다。【솔리헐(영국)=AP】

徵兵등록은男性만

★美聯邦大法院 판시

美연방대법원은 25일 징병등록은 여성들을제외하고 남성들만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여성들을 징병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남성들에대한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성만의 징병등록제를 무효로판시한 특별지방법원의 판결을 6대3으로 뒤엎고 남성만의 징병등록제를 지지했다。

이같은 대법원의판결은 美의회가 작년에 장정들의 징병등록제를 허용하면서 여성들을 제외시키기로했던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워싱턴=UPI】

유럽「戰爭꾼」集結

아프간接境에…叛軍지원세력 形成

사진작가·武器發明家등 각양각색

越南戰경험한 지원병에

首相자처하는 美國人도

아프가니스탄국경에 인접한 파키스탄의 고대도시

페샤와르市는 아프간반군들을 돕기위해 찾아 온 각양각색의 서구인들로 붐벼 마치 유럽의 한도시를 방불케 한다。

원주민들에의해「전쟁꾼」으로 불리는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뜻을품고 지난날 캐러반이 머물던 고색창연한 페샤와르에 몰려들고 있다。

「전쟁꾼」들은 스스로 용병、사진작가、무기발명가、휴머니스트、의료봉사단이라고 자처한다。그중에는 현역군인도 눈에 띈다。

스키잡지를 경영하는 한 미국인은 아프간에서 소련군이 자행하고있는 잔학상을폭로하기위해 이곳을찾았다고 한다。

미국휴스턴시에서 온 한 유한부인은 파키스탄에 있는 1백70만명에달하는 아프간난민의 비참한 생활상을 필름에 담고 있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스스로 용병이라고 자처하는 일단의 서구인들은 앙골라와 베트남전쟁에 참가했던 경험을 살려 아프간반군을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한영국인은 아프간 반군들을 위해 비밀무기를 만들겠다면서 어디론지 잠적했고 미국 뉴·올리언즈출신 전직교사 에바·츄트여사는 게릴라들이 공포의소련군 헬리콥터에 대항하도록 고안된 글라이더모양의 원격조종 비행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팔에 자동소총을 메고 으시대며 다니는 아프간계 미국인 지아·칸씨는 자신이 아프간망명정부의 수상이라고 발표해 사람들을어리둥절케했다。

그는 미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이란의 테헤란에 들렀다가 인질이 되기도했던 인물인데 결국 파키스탄에서 추방당했다。

페샤와르에는 또 용병과 비슷한 지원병들도있어 40여개의 아프간게릴라 단체들을 돕고 있다。

한 대위는 미국외교관들에의해 행적이 적발되어 서독의 본대로 귀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파키스탄정부는 이일이 있은후 미국 장병들의 휴양방문을금지한다고발표했다。【韓國日報】

◇소련 헬리콥터를 떨어뜨리기 위해 자기가개발한 원격조종의 소형 폭탄적재기를 설명하고있는 전직교사 출신의 미국인 츄트여사。

인 사이드

로만쉬語를 살려라

스위스固有語…10年내 消滅위기에

라틴語支流…山嶽지방서 命脈유지

私設연구기관 中心으로

保存캠페인 활발히展開

스위스의 고유한 언어인 로만쉬를 살리자는 운동이 일고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및 로만쉬등 4가지 언어가 사용되고있다。

그런데 이중 로만쉬는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死語가 될지경에 이르게되자 라에토·로만연구소등 사설연구기관이 중심이되어 로만쉬보존운동에 나서게 된것이다。

라틴語의 한지류인 로만쉬는 스위스의 산악지방인 그라우뷘덴州에서만 사용되고있다。 2차대전前에는 주민16만5천명중 10만여명이 로만쉬를 사용했으나 20년전에는 4만4천명、요즘에는 3만2천명으로 사용인구가 줄어들었다。

로만쉬 보존운동가들은 로만쉬가 쇠퇴하는 원인이 로만쉬가 아직 公用語의자격을 얻지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스위스에서 통용되는 4개언어중 로만쉬를제외한 3개언어만 公用語로 인정되고있다。

따라서 로만쉬를 사용하는 지방주민들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도심으로 나오면 어쩔수없이 로만쉬를 버리고 독일어를택하게 된다。(독일어 사용인구가 스위스국민 6백만명중 65%에 달하기때문)

만일 현재와 같은실태가 10년만 더계속되면 로만쉬는 한세대안에 死滅하게될 것이라고 보존론자들은 주장하고있다。

이들은 로만쉬보존책으로 ①로만쉬를 公用語로채택할것②로만쉬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어학시험 과목으로 채택할것 ③로만쉬 대학을 만들것 ④로만쉬를 사용하는시골지방의주민들이 본거지를 이탈하지않고도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공장、기업들을 건설할것⑤로만쉬를 사용하는 신문을 정부가 만들것 등 5개항을 제시하고있다。로만쉬는 스위스·이탈리아국경을 따라 라인계곡 양편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동쪽지방에서 사용되는 수트실반과 서쪽에서 사용되는 수르실반의 2가지 放言이 있다。【베른(UPI)=聯合】

世界의社說

對外政策 큰 變化없을듯

요미우리(讀賣)신문 (日·25日字)

프랑스의 대소정책은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의 사회당정부에 공산당원이 입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을것이다。 공산당의 입각은 사회당이 압승한 최근의 프랑스의회선거결과를 고려할때 기이한현상이 아닐수없다。 사회당은 아마도 공산당의 입각을 허용한다해도 그들에게 해가 없을것으로 믿을 정도로 자신에 차 있는것 같다。 아마 이것은사실일지 모르나 사회당은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 공산당의 내각참여를 허용했음이 분명하다。

사회당은 내각에 공산당원을 입각시킴으로써 공산당의 큰 영향아래에 있는 프랑스최대의 노조연맹인 CGT로부터 협력을 기대할수 있을것이다。

사회당은 1936년에 결성된 인민전선정부가격렬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동요되었던 사실을 잘기억하고있다。

우리는 이제 비록 공산당원이 입각한다 해도 자신들의 정부가 결속을 유지하며 프랑스와 기타 선진국들이 당면해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기를 희망한다。

메아리

「大虐殺」과 빵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지만 세계의 주식은 밀이라고 하겠다。서양사람들이 즐기는 부드러운 밀가루빵이 식생활의 주축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것은 19세기부터였다。

밀의 기원은 BC 7천년께 중동지방의 원시종족이 재배한데서 찾아진다。 나쁜 기후에서도 잘살아「사막의 식물」이라는별명도 얻었다。중동에서 재배된 밀은 서서히 세계로 퍼져갔고 유럽엔 다뉴브강 계곡을 거쳐 전파되었다고 한다。

눈처럼 흰빵을 유럽에선「왕비의 빵」이라고 불렀다。 1780년께 프랑스에 처음으로 빵 제조학교가 생겼다。이때만해도 영국 맨체스터지방의 노동자들은 그들수입의 절반을 빵값으로지불해야하는 귀한음식이었다。

「왕비의 빵」은 처음 상류층에서나 먹을수 있었다。빈민층은 오트밀죽、채소국、도토리가루음식으로 끼니를 이어왔다。밀가루빵은 보편화 되었지만 지금은 수천만의 지구인은 화려한 식탁은 커녕 기아의 위협아래 살고있다。

세계의식량위기는 지난해 전세계에 몰아 닥친 이상기후로 더욱 심화 되었다。지상의 곡창이라는 미국의 가뭄、동양의 冷害때문이다。지난연말 세계의 곡물재고량은 5년래「최저」를 기록할 정도였다。

작년 6월 탄자니아에서 열렸던 세계식량회의에선 식량위기규약을 새로 만들었다。동시에 군비경쟁에 쏟고 있는 자원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써야 한다고 선언했다。지구상에서 현재 1분마다 28명꼴로 굶거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지난 80년에 서방각국은 제3세계에 20억달러어치 이상의 원조식량을 풀어 놓았다。그러나밑빠진 독같아 굶주림은 여전하다。식량원조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다。受援國의곡물값을 폭락시키고、이농현상을 불러왔다。일부국가에선 원조식량을 팔아 경제개발이나 무기구입에 써버렸다。이래저래 식량위기는 가속화 되고있다。

노벨상 수상자 53명이 連名으로 오늘의 세계질서를『대규모 아사로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대학살』이라고 비난한것은 참담한 실정을 규탄한 인류양심의 준엄한 고발장으로 읽어야 할것이다。

「기아로 부터의 해방」이것이 세계인의 절박한 과제다。

Century 21.

금주의 새리스팅

1. 건물+가게
— 주매상 $4100 가격 $129,500
— 주매상 $3700 가격 $125,000
— 주매상 $4000 가격 $139,000
— 주매상 $4000 가격 $189,000
2. 집
— 방갈로 독채 3 베드룸 룸게지 양호 134,900
— 아파트 10채 달린집 229,000
3. 가 게
— 주매상 $3700 시간 오전9시~오후8시 주일 닫고 그로서리 없음.
쇼핑센터에 있는 기프트 샵등 다수 있음
4. 동양계 식당 일요일 닫으며, 이윤이 좋고 사정에 의해 급매코자 함.
적은 Down payment $15,000~20,000

황용헌

경영상담
투자상담
모기지알선

로차부동산 318 BATHURST ST
(B)361-0880 (R)286-1548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533-4125

아내의 삶

생활엔 곤란 받아본일 없지만 그의 「바람氣運」에 고통겪기도

보람넘쳤던 自由人의 作侶 「얄개」란 제목은 제가 달았죠

趙欣坡씨 미망인 鄭明淑여사

◇지난해 타계한 소설가 趙欣坡씨의 아내 鄭明淑씨.

작년에 작고한 作家 趙欣坡씨의 아내 鄭明淑씨(52·西大門區弘恩3洞403의27)는 보통의 아내와는 다소 다른 이채로운 삶을 살고 있다. 鄭明淑씨의 남편 趙欣坡씨는 스스로 '自由人'을 자처하는 분방한 스타일리스트로서 일관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鄭씨는 남편의 자유롭고 분방했던 삶에 맞추어 友情을 나누는 「길동무」로서 「도량同게」 살지않을수 없었다.

「우리부부는 한인간 한伴侶로서 서로이해하고 정을나누는 관계로 지냈어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며 살았기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즐거웠던점이 많았지요.」

趙欣坡씨는 어떤 종류이든 속박과 얽매임을 몹시 싫어 했다. 인위적인 모임이나 그룹에 드는 것을 싫어해서 文人들이 만드는 어떤 모임에도 소속되지 않고 살았었다. 他界하기 전에도 「나 죽거든 文人葬과같은 단체예식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했을 정도였다. 그리고 아내에게 「내가 죽은 후에도 鄭明淑이 未亡人으로 살지 말고, 自然人인 鄭明淑으로 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그는 남편의 이같은 人生論때문에 무진 속을썩이고 고통을 받은 기간도 있었다.

두사람은 52년 釜山피난시절에 처음만나 사랑하게 되었다. 당시 月刊「希望」지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鄭씨가 작가 趙欣坡씨에게 원고청탁을 한것이 계기가 되어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하였다. 연애하는 중에 「얄개전」을 구상하고, 「얄개전」연재고료로 결혼비용을 마련하였다.

「「얄개전」이란 제목은 제가 생각한 것이었어요.」

결혼직후 남편은 「기왕 大衆文化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한 生活文學人으로서 최선을 다해 글을 쓸것이며 따라서 아내로서 먹고 입는 고생은 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같은 약속대로 남편은 「얄개전」이후 「臥龍先生上京記」와 같은 유머소설과 영화시나리오, 방송극, 여사 소설, 아동물, 연극대본, 기타 雜文등 모든종류의글을 써 가족의생활을 크게 곤란하게하지는 않았다.

[...]

「...진 속을 썩였었어요. 화가나면 화장실로 달려가 수도물을 크게 틀어놓고 남편 욕을 마구퍼부어버리곤 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편지싸움」을 많이했다. 아내는 화나고속상하는 일이 있을때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사느냐」고 다그치는 편지를 써서 남편의 책상위에 놓고, 남편은 그다그침에 대한 구구한 변명과 함께 「내 고집도 상당하지만 당신 고집도 어지간하군...」하는식의 답장을 써서 아내의 책상위에 [...]

[...]

"未亡人으로 살지말고 自然人鄭明淑으로 살라던 마지막 당부 잊지못해요"

[...]

나의 이력서

<題字·玄信圭>

玄信圭 ㊲

農科大學 복구

英서歸國 6·25때 불탄校舍·시설재건

◇서울대학교가 美미네소타대학과 결연, 대학교복구계획을 세울때 농대입파복구책임자로 來韓했던 코퍼트박사㊧. 코퍼트박사는 당시 이 네소타대학 임학과장으로 光陵연습림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다.

美 工事책임敎授와 親交…敎授 재교육등 성과

[...]

◇혼자사는 할아버지들은 부부가 함께 사는 할아버지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다.

「홀아비 할아버지 더빨리 死亡한다」

美서 2百만명…社會問題로 대두

아내있는 사람비해 7배나 높아

아내 먼저 잃으면 거의가 絶望感에

社會단체등 救援의 손펴기시작

海外話題

[...]

가난한 어린이들

[...]

MBC라디오 劇에 金慈玉부부 출연

[...]

白凡 金九선생 32周忌 추모제

白凡 金九선생 32주기추모제가 26일상오11시 孝昌공원내 고인의 묘소에서 엄수됐다.

白凡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거행된 이날 추모제에는 고인의 아들 金信전교통부장관, 언론인 崔錫采씨, 夫琓爀전사상계주간을 비롯 시민·학생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現代人의 健康百科

眼鏡과 콘택트렌즈

일종의 醫療器…신중한 선택을

金在浩(醫博·가톨릭醫大江南성모병원안과장)

[...]

모든 좋이 있어 生 <13>

趙善作 作

禹慶熙 畵

그립자놀이 ⑫

[...]

개업 *특별세일

꽃 집

Jane Park Garden

*생화, 조화, Plants, Gifts, 꽃바구니, 화병등 꽃에 관한 모든물품 대량구비.

*모든 축하 꽃꽂이나,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각처 주문 배달.

Eglinton W. / Jane St. / Alliance / St. Clair W.

Jane Park Plaza
875 Jane St.
Toronto, Ont.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 생명교육보험
• RRSP(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흥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천우여행사

IATA

◎ CP항공 (뱅쿠버 경유)
◎ 대한항공 매일
◎ 뉴욕경유(귀로에는 L.A.경유할 수 있음)
◎ JAL주 3회

대표 김현두

Ⓑ928-3335
Ⓡ651-8081
720 Spadina Ave. Suite 104
HERALD TRAVEL SERVICE LTD.

花郞、아르헨과 激戰

大統領盃축구 어제 決勝

◇브라질—우루과이간의 3、4위전。브라질 공격진이 우루과이 선수를 제치고 골로 대시하고있다。

南美 라이벌끼리 大攻防끝에 브라질、우루과이 制壓3位 1—0

남미축구의 양대산맥인 우루과이 (다누비오)와 브라질 (비토리안)은 26일하오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제11회 대통령배국제축구대회 최종일 3、4위결정전서 치열한접전을벌인끝에 브라질이 1—0으로이겨 3위에 올랐다。준결승서 무릎을 꿇은 두팀은 사기가떨어진가운데 게임에 나왔으나 라이벌끼리의 승부의식이 크게 작용、팽팽하게 맞섰다。

花郞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에 앞서 花郞의 金正男 金鎬坤코칭·스태프는 아르헨티나의 한수높은 기술을 기동력과 투지로 파괴、홈그라운드서 우승을 차지하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花郞은 주전선수인 FB朴成華와 FW丁海遠의 부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나 邊炳柱를 비롯하여 朴景勳 李泰昊 李太燁 楊五孫 張外龍 등 젊은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있어 초반부터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밀착마크하는 작전으로 경기에임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로메로감독은 『부상선수가 많아 평소의 실력을 완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결승전인만큼 베스트를 다해 뛸것이다。한국도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후의승리는 아르헨티나에 돌아올것이다』고 장담했다。

아르헨티나는 주장인 HB가스파리니의 리드아래 아루(…)、바에호、오율라등 최전방 攻擊트리오를 이용하여 초반에 선제골을 올려 게임의 주도권을 잡을 계획을 세웠는데 花郞은 치밀한 지역방어로 수비를 두터이 쌓은 후 스태미너를 배분해가면서 기습적인 속공으로 골을 빼앗는 전법을 전개했다。

花郞과 아르헨티나는 大邱 A조예선때 맞서 1—1로 비긴 경험이있다。

◇최종일전적

▲3、4위전

브라질 1(1—0 0—0)0 우루과이

花郞4명 은퇴

축구한국대표 花郞의 洪性號·李榮武·崔鍾德·金黃鎬등 베테랑선수가 대통령배쟁탈국제축구대회를 끝으로 26일 대표팀서 은퇴했다。

레너드 2冠王

WBA J미들級 칼룰레에 KO승

【휴스턴26日=聯合】 프로복싱 WBC (세계권투평의회) 웰터급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는 25일밤(현지시간) 美國휴스턴市 어스트로돔경기장서 벌어진 WBA (세계권투협회) 주니어미들급챔피언 아유브·칼룰레 (우간다)와의 타이틀전에서 9회TKO승、새로운 챔피언으로 탄생했다。이로써 레너드는 동시에 2개의 세계타이틀을 보유한 유일한 현역 선수로 등장했다。

파나마의 카를로스·베코랄 주심은 9라운드중반칼룰레가 로프에기대채 몸을 지탱하자 경기속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레너드에게 승리를 선언했다。

레너드는 지난해 11월26일 로베르토·두란(파나마)에 8회KO승、WBC웰터급타이틀을 탈환한바 있다。

레너드의 측근은 이경기가 끝난후 오는9월16일 레너드가 WBA동급챔피언 토머스·헌스(미국)와 웰터급통합 타이틀전을 벌일것이라고 밝혔다。

◇칼룰레를 물리치고 2體級 세계챔피언이된 슈거·레이·레너드。

고교축구 釜山機工 4골 壓勝

信興實·馬山工도 1승

釜山機工은 26일 효창운동장서벌어진 제14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축구대회 1회전에서 신예 南成高(대구)를 4—0으로 대파하고 2회전에 올랐다。釜山機工의 FW金太浩는 전반21분 선제골을뽑은뒤 후반2분과 18분에 연속득점、이 대회들어 첫 해트트릭을기록했으며 후반7분 FW金太國이 한골을 추가했다。

이날 강호 信興實高는 協成商高와 치열한접전끝에 1—1로비기고 승부킥에서 4—2로 이겼다。信興實은 전반25분 方京垣의득점으로 1골을 앞서나가다가 후반14분 協成의 金龍文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馬山工은 江陵農工과 대결、전반에서 3—0으로 크게 앞서나가다가 후반 江陵에 맹추격을받아 2골을내주고 3—2로 어렵게이겼다。

◇제2일전적 ▲1회전

부산기공 4(3—0 1—0)0 대구성보

신흥실고 1(0—1 1—0)1 협성상고 〈승부킥4—2〉

마산공고 3(3—0 0—2)2 강릉농공

實業야구 韓一銀、農協 두들겨 7—3

金容哲·許哲九 통쾌한 3점홈런

실업야구후기1차리그 4일째 경기가 26일 서울운동장에서 속행、韓一銀行은 4번 金容哲、9번 許哲九가 6·8회말 각각 3점홈런을 터뜨리는 수훈을 세워 農協을 7—3으로 제압하고 2승1패를 기록했다。韓一銀行은 農協언더드로 宋容成을 공략치 못하고 5회까지 1안타의 빈공을 보이며 1—0으로 리드당하다가 6회말 무사1루에서 히트·앤드·런 작전의 성공으로 역전승의 계기를 잡았다。

第一銀—商銀대전은 2—2무승부로끝나 양팀 나란히 1승1무1패를 마크했다。

한편 전날 經理團은 3회초 6번 李根植의 결승2타점적시타등2개의 안타·포볼·도루에다 적실·폭투등으로 승세를 잡은 4점을 얻어 商銀에 6—3으로 8회 일몰콜드게임승을 거두고 2승1패를 마크했다。

韓一銀6회말 공격서 선두 2번朴請成이 포볼로출루하자 3번 禹龍得이 2루수쪽으로 강하게 빠져나가는 타구를날려 무死1·3루가됐다。이때 4번金容哲은 초구를 고른뒤 제2구 한가운데직구를 라이너로 왼쪽담장을넘겨 역전3점을 올렸다。

韓一은 2사후에도 7번 李成得이 데드볼로 출루한후 8번 襄泰相의중전안타로 세칸、4—1로 점차를 벌렸다。

農協은 역전당한뒤 7회초 1사2루에서 1번 劉應三이 중월 2점홈런을 터뜨려 4—3으로 바짝 따라붙었다。뒤이어 우월3루타를 날린 洪熙燮이 과감한 홈스틸을 기도했으나 아깝게 태그아웃당해 동점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韓一은 8회말 9번 許哲九가 좌월 3점 홈런으로 7—3을 만들어 승리를 다졌다。

◇제4일전적

농협(2패)	100	000	200	3
한일은(2승1패)	000	004	03×	7

▲홈런=金容哲(6회말·3점·한일) 許哲九(8회말·3점·한일은) 劉應三(7회초·2점·농협)

제일은(1승1무1패)	000	001	010	2
상업은(1승1무1패)	002	000	00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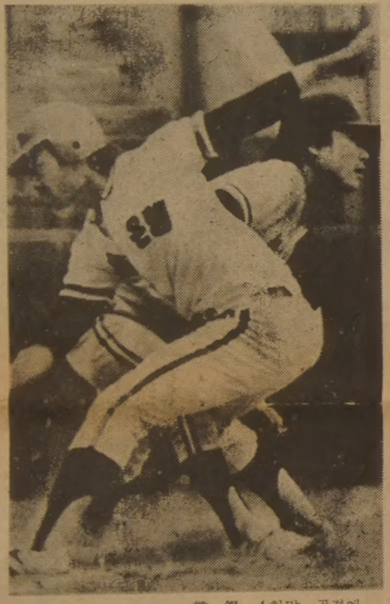
▲홈런=李鍾道(6회초·제일)

◇제3일전적

경리단(1승1패)	014	001	00	6
상업은	000	011	01	3

〈8회일몰콜드게임〉

▲홈런=禹京夏(6회초·경리) 具千書(6회말) 具永錫(8회말·이상상은)


3루 세이프 韓一銀 4회말 공격에서 2死후 포볼로 출루한 5번李碩採가 6번韓承安의 좌전안타로 3루에세이프되고있다。農協3루수는洪熙燮。

中學농구 延曙·大京물리쳐 首都·龍山中 쟁패전

제6회 협회장기쟁탈 전국남녀중학농구대회 6일째 남중부 준결승전이 26일 장충체육관서 속행、首都中과 龍山中이 우승을 다투게 되었다。이날 首都中은 월등한실력으로 延曙中을 59—46으로격파、결승에 올랐고 龍山中은 大京中에 54—29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제6일 준결승 ▲남중

수도중 59(33—31 26—15)46 연서중

용산중 54(21—12 33—17)29 대경중

매켄로 3回戰에 윔블던테니스

【윔블던25日(UPI=聯合)】 지난해 윔블던테니스대회의 준우승자인 美國의 존·매켄로는 25일 속개된 윔블던대회 남자단식 2회전에서 멕시코의 라울·라미레스를 3—1로 제압、3회전에 올랐다。

또한 이대회 74년 패권자인 지미·코너즈도 이날 濠洲의 크리스·후이스를 3—0으로 누르고 3회전에 진출했다。

女子배구 李恩敬 國家대표·青少年팀서 줄다리기

今天の話題

◇李恩敬。겹치기 선발당한 李자신도 주니어대표서 먼저 훈련받기를 원하고있다。

태릉선수촌서 여자배구 국가대표선수들과함께 강화훈련중인 李恩敬(現代)이 청소년대표로 복귀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게 일고있다。

李恩敬은 지난5월말 국가대표및 주니어대표선수로 동시에 선발됐으나 배구협회가 국가대표팀에 우선을 주는 통에 일단 주니어대표와는 떨어져 있어야 했다。8월말까지는 국가대표선수들과 훈련을 받고 이후 청소년대표팀에 李를 합류시킨다는게 협회의 방침이다。

먼저 열리는 世界주니어大會 위해 "青少年팀서 訓鍊해야"

排協선 代表팀 우선編入

그러나 대다수 배구인들은 청소년대표가 출전할 제2회 세계주니어 배구선수권대회(10월·멕시코)는 국가대표가 참가하는 월드컵(11월·日本)보다 비중이 클뿐아니라 시기도 앞선만큼 李는 당연히 주니어에서 훈련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주니어대표는 오는 8월 하와이서열리는 태평양연안대회에도 출전케되는만큼 지금부터라도 李는 청소년대표에 복귀、콤비네이선을 맞춰야 한다는것。

태평양대회는 지금까지 한국이 9승을 독차지할정도의 것이었으나 올해부터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사상처음으로 中共이 출전할 예정이며、최근 전력이 대폭 강화된 日本도 이번 대회에서 한국을 꺾어보겠다고 벼르고있다。만일 여기서 좋지못한 성적을 낼경우、국제경기 경험이적은 나어린 선수들의 사기가 급격히떨어져 두달뒤의 선수권대회에도 나쁜영향을 미칠것은 뻔한 노릇이다。

또한 1회선수권대회에 비해 지금의 청소년팀 전력은 크게 뒤떨어져있다。당시에는 金花福 郭宣沃 金愛姬 沈順玉 金淑 黃京子등 6명의 국가대표선수들이 주축을 이루어 여자부 첫 우승이라는 영광을 안았었다。그러나 현재의 청소년팀에는 국가대표급으로는 李박에 없다。그나마 기둥인 李를 대회 한달전에 청소년대표팀에 복귀케 한다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는게 여론이다。

1m75㎝의 키에 점프와 기량이 뛰어난 李라곤해도 국가대표팀서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청소년대표에게는 공수의 핵이나 다름없다。물론 월드컵대회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비중과 시기가 앞선대회에 일단 대비한다음 월드컵에대한 걱정은 차후에 하는게 순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훈】

流星의 賦 <116>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亡兆의 日月 ②

심의겸의 전제(專制)가 있었는데도 김효원은 전랑(銓郞)벼슬에 올랐다。전랑은 정오품(正五品)이었지만 지방관(地方官)을 비롯하여 중앙의 관직을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막중한 인사권(人事權)을 가진 직책이다。그런 까닭도 있어 자연 젊은 사류(士類)들이 김효원의 둘레에 모였다。

심의겸이 김효원을 싫어 했듯이 김효원도 심의겸을 싫어했다。김효원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의겸은 사람이 미련하고 성격이 거칠어 못쓴다。크게 등용될 인물이 못된다』

그러던 차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沈忠謙)을 전랑으로 천거하려는 의견의 움직임이 있었다。김효원이

『전랑이 외척 작인의 물건인가? 심씨 문중에서 반드시 차지해야겠다는 까닭이 뭐냐、안된다』

고 단호히 거절했다。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일(前日)의 사한(私恨)으로 보복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김효원을 소인(小人)이라고 욕했다。미워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사람끼리 서로 배자에 반목과 대립이 점차 심각하게 되었다。누구가 말을 낸것도 아닌데、당시 심의겸의 집은 돈의문 밖 새다리(敦義門外新橋)에 있었고、김효원의 집은 낙타산 아래 어의동(於義洞)에 있어、즉 심의 집은 서쪽、김의 집은 동쪽이어서 심의 당파를 서인(西人)、김의 당파를 동인(東人)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동인들은 대개 동인이었고 명문의 출기와 나이든 사류들은 대개 서인이었다。동인들은 젊은 혈기에 고담준론(高談峻論)、서인들을 소인배(小人輩)라고 비방하길 꺼려하지 않았다。

을해년(乙亥年) 선조 8년 7월、김효원이 사간(司諫)이 되고 허엽이 대사자이 되었다。허엽은 아득히 선배였지만 사사건건 김효원의 말을 잘 듣고 그를 추대했다。동인들은 허엽을 높여 그들의 영수(領袖)로 삼았다。

한편 우의정 박순은 청렴하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신진(新進)들의 방자한 언행(言行)이 지나치다고 하여 선배측 서인(西人)을 옹호하고 두둔했다。그러자 허엽이 기왕에 있었던 박순의 옥사처리(獄事處理)의 잘못을 들고 나왔다。박순이 위관(委官)으로서 처리한 사건인데 재령에서 종이 상전을 때려죽인 사건이 있었다。

의금부(義禁府)의 지사 홍담(洪曇)은 그 옥사가 억울하다고 하여 죄인을 풀어주라고 했다。위관 박순은 시체검증(屍體檢驗)을 명했다。영(令)을 받은 지방관은 홍담등의 뜻에 맞추어 사인(死因)을 병이라고 했다。그래서 일단의 죽을 밝아 박순이 죄인을 놓아 준것인데 허엽이 대사자가 되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죽은 사람과 허엽과는 친척 사이였다。

박순은 병을 이유로 우의정의 자리에서 물러났다。서인들은 김효원의 일당이 심의겸의 세력을 꺾기 위한 모략이라고 믿고 흥분했다。서인들은 대개 나이가 많아 관력(官歷)이 복잡했으므로 그런 식으로 기왕지사를 들추고 나오면 먼지가 나지 않을 사람이 적었다。그 반면 동인들은 신진들이었기 때문에 들추어 낼만한 과거지사가 별로 없어 자연 언동이 방자하게 되었다。

여름밤을 식히는 노래·만담의 향연

7월3일(금) 하오7시30분

센트럴·테크니칼·스쿨 (베더스트×하보드)

서울한의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왕진함)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한의사 김 장 석

☎ : 247-9347

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말씀

CITY.T.V.

CHANNEL 79

CABLE 7

SUNDAY

AM 9:30-10:00

SINGER

미싱계의 왕 싱거!

스페살 MACHINE & 캐비넷포함

ONLY $249.99

바느질 배우는 낮과 저녁반 코스를 제공

우리는 모든 종류의 미싱을 취급합니다.

TRADE-IN도 합니다.

CALL : MR. ARMAND

620 BLOOR ST. W. TOR.

(킹스카메라 건너편)

☎ : 537-4881 or 537-3841

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Toronto,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일본비데오센터

BETA, VHS두종류

※일본, 한국 테이프 준비됐읍니다 두종류의 테이프가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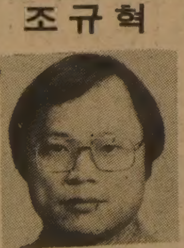
-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판매
- 비데오테이프대출(빌려줌)

월, 수, 토 : 오전10시~오후6시

목, 금 오전10~8시 회원모집(특별할인)

화요일은 문 닫습니다. 우드바인서쪽 1 block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부험
-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진 씨 안 경 점

각종 안경류와 콘택트렌즈 전문, 소프트 콘택렌즈 90달러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 영업시간 ●

월~토 9 : 30AM~6 : 00PM 월~토 11AM~7AM

※ 이 광고를 가지고 오시는 분께 20% 할인해 드립니다.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 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 BLOOR ST.W. ☎ : 534-2003

直轄市승격 앞으로 4일

손꼽아 기다린 祝祭의 팡파르

直轄市로 승격하는 大邱와 仁川。 모든 시민과 모든 기관들은 축제분위기속에서 술렁이고있다。 7월1일。 그얼마나 고대했던 날인가。 1등시민이되는 그날을 위해 관·민은 합심해서 모든 채비를 끝내놓고 축제일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앞으로 4일。 거리마다 「직할시승격」을 경축하는 아치·현수막·애드벌룬이 장식됐고 행정체제도 모두 갖추어 놓았다。 직할시가 되는 양대도시의 축제분위기와 시민표정 그리고 여타의 준비상황들을 알아본다。

大邱

애드벌룬만 33개…官民합동 준비완료

거리마다 꽃단장 갖가지 行事계획도

직할시승격 추진15년만에 소원을 이룬 1백60만 大邱시민들의 기쁨은 정말 크다。

정부의 공식발표이후5·6월에 걸친 대대적인 경축행사를해 소원성취의 기쁨을 만끽하고 이제 바로 그날을 맞이하게된것이다。

주요간선도로에 10개의 대형 경축아치가 세워졌고 12개의 경축탑、大邱시내상공에 띄워진 33개의 경축애드벌룬、60개의 경축현수막이 경축분위기를 잘 대변해준다。 그것뿐이 아니다。 꽃으로 치장된 거리、大邱驛앞 네거리의 대형꽃탑。

市에서는 기념메달 6천개를 만들었고 경축식날에 달 경축리번 1만개도 준비했으며 시내버스 1천대와 택시4천7백대에는 경축표어를달아 운행하도록했다。

시민들은 새정부가주는 최대의 선물이라고 기뻐하면서 벌써부터 축제분위기에 감싸여 술렁이고있다。

승격경축행사는 1일상오8시30분부터 시민운동장 본경기장에서시작된다。 半夜月국교생1백명、漆谷농악대30명、2군의장대50명、기수단2백22명과 6개구청에서 1천3백92명이 참가해『세계속에발전하는大邱』『꽃수레행진』『약령시』『농악』등 갖가지 행사를 벌인다。曉星여대생 30명의 동래학춤、曉星국교생 1백80명의 농악、慶熙여상생64명이 관악마칭밴드를 연주한다。

승격식 공식행사는 상오10시부터새마을지도자1천9백68명 정화위원 2천4백92명 새마을부녀회 3천9백36명 예비군중대장 2백57명 기관단체원 5백명 기업체2천1백명 통장1천9백68명 반장 1만3백79명 주민 6천4백명등3만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린다。

식이끝나면 비둘기2천마리와 풍선1만개를날리고 군항공대비행기3대가 축하비행도 벌인다。 또 각단체의 1천6백80명과 41대의 가장행렬차량이 시민운동장을 출발、동원예식장↓大邱은행↓동신교↓MBC까지 4.8㎞의 시가행진을 벌여 경축행사는 절정을 이루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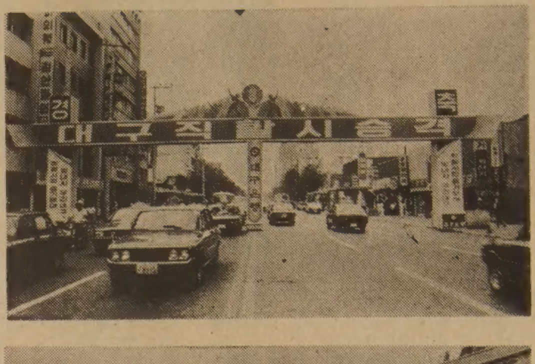
30일하오8시부터는 전야제행사로 3백발의 불꽃놀이와 전야예술제를한다。

달성공원과 중앙공원도 1일에는 무료개방된다。이밖에도 상공회의소주관의 산업전시회、시공보실주관의 기념사진전시회、예총경북지부주관의 동양화、서양화、서예、판화、공예등 2백점전시회도 30일부터 한달동안 열린다。

또 수석전시회、연예인1백10명이 출연、KBS 1백분쇼를 생방영하며 2일하오에는 한글백일장도 열린다。

여하튼 大邱는 직할시승격으로 인근6개邑·面을 포용、17만5백29명의 새시민을맞이해 1일부터는 인구 1백77만7천9백87명의 매머드市가된다。

시민들은 앞으로 도시계획조정시공단지역은외곽으로 분산조정하여 도시권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해、도로、급수문제해결과 도서관확충에 특별한 배려가있기를 바라면서 직할시승격을 스스로 자축하고 있다。 【大邱支社】



◇大邱시내 간선도로에 세워놓은 대형경축 아치。 시가 전역이 축제분위기로 술렁이고 있다。 【大邱】

◇東仁川驛앞 간선도로에 세워놓은 대형경축아치가 축제분위기를 한층 북돋워놓고 있다。 【仁川】

仁川

개항 이후 최대의 연속적 경축行事

일등市民 矜持갖고 밤새며 준비한창

仁川의 경축무드도 大邱와 다를게없다。 거리、상가、주요건물마다 경축 플래카드、현수막이 걸려 경축분위기를 한층북돋우고있다。

바다를 배경으로한 부두위에 높이올려진 경축 애드벌룬、하루20만명이 드나드는仁川의관문 東仁川驛앞 간선도로에 세워놓은 대형 경축아치와 애드벌룬이 시민들의기쁜마음을 더욱 설레게해 놓고있다。

또 역앞 간선도로에 걸린 대형 아치 선전탑에 붙은 「경축 인천직할시 승격」이 유난히도 오가는 시민들의눈길을 끌고있다。

또 畜平등 외곽 주요도로 곳곳에도 경축탑과 경축현수막이 걸려있다。

지금 직할시 승격준비를총지휘하고있는 시청직원들은 한달가까이나 밤을 새우다시피 바쁜 나날을보내면서도즐겁기만하다는 표정들。

문화공보실 金光顯씨(26)는 모두 1등시민이 되기위한일이어서어려운줄을모르겠다고 말했고 시의 한 고위당국자는 시민들도 매사에 그렇게 협조적일수가 없다면서 관·민의 단합된 시민정신을 자랑한다。

시민들은 경축 현수막을 손수 만들어달기도했고 시에서 협조요청을하면 어느누구도 불평한마디없이 협조적이라는것。

내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될 기념경축식은 1일상오10시 仁川공설운동장에서 범시민적으로 열린다。

비가 올경우는 실내체육관、운동장 시설준비는 이미 끝냈고 안락 천막의자 4백개를 준비、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갖춰놨다。

또 전광판의 가동을 점검했으며 로열박스등 환경정화도 1차점검을 마쳤다。

기념식장에서는 오색 고무풍선 3천개를 한복차림의 仁川女中학생 3백명이 날리고 이와함께 비둘기 1천마리도 날린다。

또 기념식장에 4개구청이 각각 2개씩의 애드벌룬을띄워 저마다의 특색을자랑하며 洞마다 1개이상의 플래카드를 달아놓았다。 仁川開港이후 최대의 행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기념식이 열리는 시간에는 仁川港부두에 정박한 외항선등 모든선박은 일제히 1분간씩 뱃고동을울려 경축무드를 고조시키게된다。

30일의 전야제는 시민회관에서 시향연주회와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등이 경축공연을하고 또 자유공원과 수봉공원 북구청앞에서는 1백발에서 1백50발씩의 경축불꽃놀이를 벌인다。

경축행사는 공설운동장에서 가장행렬을 벌이고 공설운동장→桃源橋→東仁川驛→京洞→畓洞로터리간의 경축시가행진으로 이어진다。

이행진에는 ○사단과 ○부대및 海域司의 군악대와 의장대도 참가한다。

仁川시내 9개국민교생의 고적대、4H농악놀이、龍一국교농악대가 따르고 구청 직장에 벌이는 13개팀의 장행렬이 뒤따른다。

이같은 경축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국일보社 비행기가 5색연막을 뿌리며仁川상공을 축하비행하고 1천마리의 비둘기 3천개의 고무풍선이 항도仁川의 하늘을 수놓음으로써 경축행사는 절정에 이르게 된다。

하오2시에는 신흥국교운동장에서 해군군악연주회를 비롯 KBS가주관하는 인천직할시승격 경축대공연도 열린다。 【仁川支社】

3명窒息死

洞窟서 揚水機가동하려다

【三陟=聯】25일 하오2시40분께 강원도三陟郡三陟邑烏飛1里1班 야산에 있는 자연석회동굴속에서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키위해 설치해둔 양수기를 다시 가동하러 들어갔던 이마을 朴후彬씨(44)와 金태호씨(28) 朴현두씨(20)등 3명이 굴안에 차있던 아황산가스에 질식、모두 숨졌다。

이들은 계속된가뭄으로 모자라는 식수를 마을에공급키위해 전날하오 동굴안 지점에 5마력짜리 양수기1대를설치、40간 동굴속에 괸물을 끌어내고 귀가한후 이날 다시 양수기를 가동키위해 朴동학씨(60)등 다른 주민 6명과함께 굴속으로들어갔다 변을 당했는데 다른 6명은 가스냄새를맡고 빨리 뛰쳐나와 무사했다。

사고는 이날 길이 40m、높이 3m의 동굴안이 전날 양수기가동때 발생한 아황산가스로 가득차있었음에도불구、숨진 朴씨등3명이 이사실을 전혀모르고굴속으로계속들어가다가스에질식돼일어났다。

農地 2천町步 浸水

嶺湖南에 豪雨 1명 失踪

영·호남지방은 지난25일 쏟아진 호우로 1명실종、1명부상등 2명의 인명피해와 건물4동、축대7개소、도로 1개소、농경지 2천2백72ha가 유실 또는 침수돼 8백23만4천원의 재산피해를 입은것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집계했다。

한편 중앙관상대는 남부지방에 호우를몰고왔던 장마전선이 26일 세력이 약화되며 남쪽으로 밀려남에따라 이날 상오6시 전남지방에내렸던 호우경보와 경남、부산、전북、제주지방의 호우주의보를 모두해제했는데 濟州지방만 이날 하오4시를기해 다시호우주의보 (예상강우량 80~130㎜)를 발표했다。

또 관상대는 주말인 27일에는 남해해상에 걸쳐있는장마전선과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받아 전국적으로 비가내리고 휴일에는충청이남지방에만 약간의 비가 계속 되겠다고 예보했다。

文鮮明목사 추방

美 法的조치고려

【워싱턴26日UPI聯=聯】美정부는 통일교 교주文鮮明목사를 추방할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ABC방송이 26일 보도했다。

ABC방송은 이날美법무성이 곧 법적추방절차를 취할것이라고 보도했는데 美국무성의 한 대변인은 이에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ABC방송은 文鮮明목사가 부당하게 영주권을 얻었기때문에 추방을 고려하게된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保健專門大學 學長에 金成器씨

문교부는 26일 공석중인 서울保健전문대학장에 金成器교수(45·檀國大·농학박사)의 취임을 승인했다。

아파트 財産權 행사못해

分讓金받고 登記이전 안해줘

【大邱=聯】경북達城郡城西邑甘三洞55의2 宇一아파트 입주자 40가구는 시공회사인 宇一주택이 3억여원의 아파트분양금을 받고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있다。

25일 입주자들에 따르면 宇一주택은 지난해 4월 대지 5백13평에 46가구분 아파트 1동을 건립、지난2월23일 達城군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뒤 9백만~1천3백만원의 분양금을 받고 40가구를 입주시켰다。

◇車道 한복판에 高壓電柱

노폭 10m의 차도중앙에 12개의 고압전주가 3년째 방치되어있어 사고위험은 물론 관광지의 면모를 크게 해치고 있는 충남大德郡儒城읍내 군인휴양소—유성호텔간 도로。 【大田=聯】

한국物産展人氣

北九州市서열려

【東京支社】한국무역진흥공사(KOTRA)후쿠오카(福岡)무역관이 주선한 韓國物産展이 일본기다규우슈(北九州)시 이쓰쓰야백화점 7층에서 지난25일 南洪祐駐후쿠오카총영사、가메이·히까루후쿠오카縣지사등2백여명의 한일관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이번 한국물산전에는 高麗商事등 국내15개사에서 출품한 민예품、이조가구류、청자、백자등 5만여점이 진열되어 직매하게 되는데 韓國食品(株)등이 내놓은 김치、인삼류、慶州法酒등이 큰인기。

오는 30일까지 이곳에서 전시한다음 구루미、쓰루야、하까다등 지방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다。

鄭相鳳씨를 임명

纖維輸組부이사장

상공부는 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 副理事長에 鄭相鳳씨를 25일字로 임명발령했다。

居昌땅값 크게올라

商街 坪當2백만원

【居昌=聯】東西고속도로의 착공을앞두고 居昌지방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26일 관련업계에따르면 지난해까지만해도 평당 1백만원선을 밑돌던 居昌邑 上洞상가지역이 평당 최고2백만원을 호가하고있고 역시 중심가인 河洞지역도 평당1백50만원대로 뛰었다。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유일한 한국인
강찬영 변호사
534-1129
534-1120

OHIP
보험료를
보조합니다

온타리오주의 저소득자는 OHIP의료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 온타리오주 예산은 보험료 액수를 변경했읍니다.
독신으로서 연소득이 8,200달러 미만, 또는 4명가족의 총소득이 14,000달러 미만일 경우, 정부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예전처럼 연금수혜자나 정부생활비 보조를 받는 사람은 계속 의료보험료 지원을 받습니다.

OHIP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알고싶은 가장좋은 길은 지역 OHIP사무소에 알아보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부 정부부문 청색페이지에 적혀 있읍니다. 비록 과거에는 보조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보조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을지도 모르니 한번 문의 하십시오.

Ministry of Health
Ontario
Dennis R. Timbrell, Minister

"美大學 한국分校" 詐欺劇

留學바람 타고 "通信교육으로 學位"속여

1명구속, ILI學院長수배

치안본부수사대는 26일 미국에 가지않고도 통신교육만으로 학위를 받을수 있다는 허위선전광고를 신문에 내고 이를보고 찾아온 57명의 유학지망생으로부터 입학원서대금을 사취한 가칭 아메리칸내셔널대학교 한국법정총대리인 裵琪得씨(51·서울麻浦區城山洞271의33)를 교육법위반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교영남지역총신분교장 金永吉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서울鍾路2街 ILI외국어학원장 金圭씨(3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裵씨는 지난 4월30일 미국애리조나주에 있는 아메리칸내셔널대학교총장 프렘플린씨와 동교한국법정대리인계약을 체결한후 무직인 金씨등과 공모, ILI학원장 金씨및 ILI학원내에 아메리칸 내셔널대학교한국 통신대학분교를 설치한것처럼 신문에 광고를 내 미국에있는 본교에가지않고도 통신교육만으로 학위를 받을수있다는 선전을 했다는 것.

이들은 농학·경영학·언어·통신학등 15개과정을 통신교육을거쳐 논문을제출하면 학사·석사는 물론 박사과정까지 이수할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신문에내 지난달3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사이에 이를 보고 찾아온 유학지망생 金德善씨(28·서울冠岳區新林洞)등 57명에게 입학원서 1매당 3천원씩받고 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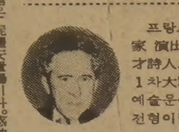
총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갖고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존중할것▲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있는 사용자를엄단하고 노동조합권을 적극보장할것▲우리는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범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하여 불매운동도 불사할것등『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확립』에 대한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결의문에서 노총은『노동조합활동이 전반적으로위축, 전국각지에서 기존노동조합이 파괴되거나 조합결성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있다』고 주장했다.

文豪의 名言

美術館은 屍體安置場이다

장·콕토 <1889~1963>



프랑스詩人 小說家 劇作家 演出家. 젊어서부터 天才詩人으로 이름을 떨침. 1차大戰후부터 前衛的인 예술운동에 참가, 近代派의 전형이라 불렸다.

美術館은 屍體安置場이다. 感動하는 唯一의 機會라면 거기서 친구들을 만났을때다. 시체 배후에 있는 벗들 말이다.

× × ×

「有名－나는 이곳 저곳 할것없이 모든곳을 두루 뛰어다니는 다리가진 胸像을 聯想한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話

"예쁜 크리스머스 트리를 사시지요!" "크리스머스를 지낸지 여러달 지났잖아, 이친구야!" "지금 트리를 팔러다녀서 뭘 하겠다는 거지?" "크리스머스대목을 앞당겨 보려고요"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섬유輸出 戰略회의 한국등 20국홍콩서

【홍콩23日聯合】 한국을비롯한 20개 개발도상섬유수출국대표들은 다자간 섬유협정(MFA)경신을 위해 다음달제네바에서 열릴 회의에앞서 개발도상국들과 공동전략 마련을위해 22일 홍콩에서 1주일간의 회의를 개막했다.

회의를 주재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개도국비공식 그룹의장인 페르·하라미요 콜롬비아대사는 『금주말까지 MFA의 주요 문제점들에 대한 공동입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콩政廳대표 L·W·R·밀즈씨는 이번회의에서 미국과 구공시(EEC)의 MFA남용에대한 참가국들의 불만문제가 중점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발도상 섬유수출국회의는 개발도상국으로 부터 섬유수입을 제한하려는 미국과 EEC의 압력에 맞서 공동노선을 구축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MFA는 금년연말로 효력이 만료되는데 이를 경신하기 위한 회담이 오는 7월13일 제네바에서 개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급속도로 섬유수출을 확대하고있는 중공도 업저버로 참가했는데 중공은 MFA에 가입하지않고 있다.

발作物 播種부진 고구마 44%에 그쳐

그동안 계속된 가뭄으로인한 旱害對策추진으로 고구마·옥수수등 田作物 播種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있다.

이는 지난6월초까지 계속된 가뭄으로 파종을 하지못했기 때문인데 농수산부는 최근의 비로 전국 대부분이 해갈되고 모내기가 거의 완료됨에따라 田作物파종을 적극 권장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張吉山 (1599)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彌勒逆謀 第一章 (59)

사당말 빈터에는 굿마당이 마련되고 잽이들 중앙에는 안무당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 앉았으며 계화와 백련이 그리고 김송운과 모갑이 일가들이 각종 사물 악기 등속을 잡고 앉았다. 그들의 뒤편에 월정사 승려들이 끼어 있었다. 원향이는 전립에 전복 차림으로 쾌자 자락을 날리며 춤추고 돌아가는데 눈자위는 붉어지고 뺨에는 홍조가 가득히 번졌으며 작게 오므린 입술에서는 사설과 타령이 연이어 흘러 나왔다. 이마와 뺨에서 목으로 타고 흘러내린 구슬땀이 저고리 앞섶을 적셨고, 등 뒤도 흠뻑 젖었건만 도무지 지친 기색이 보이질 않았다.

『어라 이 혼백이 누구의 혼백이냐. 산에 올라 호환 맞던 혼백, 들에 내려서 객사한 혼백, 흉년에 굶어죽던 혼백, 만경창파에 고기밥 되던 혼백, 염병 앓다 땀 흘려 가던 혼백, 놓고가고 배고 가던 하탈 혼백, 찔려 죽고 채여 죽던 혼백, 맞아 죽던 혼백, 빌다 죽던 혼백, 미쳐 죽던 혼백, 불 속에 타서 죽던 혼백, 총 맞아 죽고 화살 맞아 죽던 혼백, 칼에 죽고, 창에 죽고, 밟혀 죽고, 눌려 죽고, 엎어져 죽고, 자빠져 죽고, 기막혀 죽고, 숨막혀 죽고, 창 터져 죽고, 등 터져 죽고, 팔 부러져 죽고, 다리 부러져 죽고, 피 토하여 죽고, 웃고 죽고, 울다 죽고, 뛰다 죽고, 외치다 죽고, 달아나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가다 죽고, 오다 죽고, 이 갈며 죽고, 한숨쉬다 죽고, 남 혼백에 여혼백, 아이 혼백, 늙은 혼백, 그저 많이 먹구서 좋은 데로 헌도를 허소사. 이도 굴고 저도 굴어 사인 생인 가림없이 작별하게 헌소사』

원향이 사설을 읊조리며 둘째 마당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사선골과 탈고개에서의 아비규환이 새삼 생각나서 어느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안무당과 계화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굿이 밤늦게까지 계속되건만 계화가 간간이 뛰어들었을뿐 원향이는 시종 대굿 열두 마당을 지치지도 않고 뛰었다. 안무당은 몇번 사설을 가르쳐주고 순서를 정하여 주었는데도 원향이가 신묘한 총기로 그 수많은 말과 동작을 벌어내고 지어내는것을 보고 몸주가 완전히 원향의 작은 몸 안에 하강하였음을 느꼈다. 원향은 과연 큰 무당이 될터였다. 백련이나 계화라면 아직도 먼 일이었다. 원향이의 굿은 어느 경험많은 큰 무당에 비해서도 결코 선것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푹 익어 있었던 것이다.

『내 대감님네 거동봐라. 한 나래를 툭탁치면 일이 나 만석이 쏟아지구, 또 한 나래를 툭탁치면 억조 나 만석이 쏟아진다. 밑에 노적은 싹이 나구, 위에 노적은 꽃이 피구, 부엉덕새 새끼를 친다. 금구렁이는 구불치구 업족제비는 꼬리를 볼구, 도와를 주던 내 대감님네, 산으로 놀던 내 대감, 강으로 놀던 내 대감, 바다로 뜨던 내 대감, 청사초롱에 불 밝히구 계수나무 능장 짚구 이리 깜빡 저리 깜빡 동네지키던 개비 대감, 얼씨구 좋다, 절씨구나, 갈적에는 빈바리요, 들어올적에는 찬바리구나, 얼씨구 좋다 절씨구나, 나무아미타불 구월산 내린줄 기 아사봉 데리고 젊을 짓구, 삼불제석님 모셔다가 낮이나 되며는 염불통하구, 밤이나 되며는 수두설법이요, 아미타불 갈구 염주 당말루 씨를던져 철아래 보살님네 염주 발이나 매려 가세. 염주 발을 다 매고서 구월산 좋단 말 듣구 만인중생이 구경을 가오. 산마다 골이 나고 골마다 녹수로구나』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조 지 섭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영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인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742-0800 미스타 차

입주하시거나 출퇴근하셔서 애기 돌보아 주실분
오후6시 이후 연락
☎: 535-4441

파타임 스토아 헬퍼구함:
빅토리아·팍과 댄포트
☎: 759-7501

베이비 씨터 구합니다.
☎961-6647 미스타 최

MONAMI JAPANESS R.: 웨이트레스
(11: 2PM)월~금요일. 114 Laird Dr., Leaside
☎: 421-6016(Mr. Masuda) Call after 2PM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533-0910 피터

애기와 살림 돌봐 주실분 구함
☎: 425-9839(B)
438-0920(R)

주말 케쉬어 구함
WILSON과DUFFERIN지역
☎: 638-5530 미세스 김

남학생 가게 헬퍼 구함
261 SCARLETT RD.
☎: 767-0762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531-0474

COOK(한식과 일식), 웨이트레스 구함
2432 EGLINTON AVE. E.
☎: 759-8512 CHOI'S레스트랑

인쇄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실 남자분 구합니다.
☎: 746-0675

재봉사 구함 (남·여)
•약간명 •유경험자 •좋은 대우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웨이트레스 풀타임1명, 파타임 1명
주말에 주방일 도우실분 1명
☎ 532-2727

초저녁 사무실
청소할분 구함
☎: 977-1110

1) 풀타임 헬퍼 남자 주5일(60시간)시간당 $6 트럭운전, 영어요함.
2) 토, 일요일 남자 파타임 요함.
3) 가정일 돌보실분 오전8시~오후5시, 출퇴근, 월~토요일까지, 주6일, $100.00
☎: 762-1572(B), 769-9854(R) 미세스 김

매매및 양도

벡커 매매
연매상 30만달러
☎: 783-1984

가게매매: 직접내방원함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1385 WESTON RD. (제인×웨스턴)

프렌차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1169 WOODBINE AVE.
☎: 423-7939

가게 QUIPPMENT매매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고깃간등
☎: 653-6366 9~5시
292-0332 6시이후 랄엔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밀크스토아 매매
4630 KINGSTON RD.
☎: 282-7596

DONNA LIA FRUIT: 성업중인 가게를 매매합니다.
주매상 $6000.
☎: 654-7240 1362 ST. CLAIR W.

주인이 은퇴상 팔려고 하는 이윤좋은 비즈네스.
에토비코에 쇼핑 멀안에 있음 ASKING $95,000.
☎: 233-9866

아이스크림 가게 팝니다:
☎: 535-7772, 439-8885 (오후6시 이후)

스토아 매매: OPEN WINDOW BAKERY및 그로서리가게
이주관계로 매매, 직접내방 상담요망
1550 BLOOR ST.

가게매매:
주매상 $4,200. 살림집포함(4베드룸) 렌트, 리스, 호조건. ☎: 1-579-4451(OSHAWA)

OPEN 하우스
토, 일요일 오후1~3시, 평일 오후6~8시
10.5% 물게지 시작, LANSDOWNE서브웨이 가까운지역
6룸, 2키친, 현 이자율에 비해 4년동안 $2500 세입가능, ASKING $69,900에 약15000다운
☎: 232-2200 JOHN SCHWEIGEL
RED ROSE R E LTD REALTOR

벡커 프렌차이즈 스토아 매매
325 ST. GEORGE ST.
☎: 924-7696 미스타 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275
☎: 635-1038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465-4003

성업중인 햄버거 샾 급매
다운다운지역
☎: 535-2804

벡커 프렌차이즈 급매:
1351 DANFORTH RD.
☎: 267-2647

26인치 칼라TV급매:
좋은 컨디션
☎: 766-9169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656-7753

가게 렌트
•영·스트릿(새 교외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지역임
(가게이름: VALDI DISCOUNT FOOD STORE)
•자본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높은 이윤및 매상이 가능
•전화연락: MRS. POPP(223-1606)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6000 이상, 리스5년, 옵션10년
전화번호: 822-0363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메디칼 빌딩안에 있는 커피 SHOP팝니다
5일 반 OPEN ☎: 968-6431(3시이후 연락바람)
499-5217(저녁)

그로서리, 과일과 야채, 마른음식등
식료품을 취급하는 가게 매매
많은 아파트 빌딩으로 둘러 쌓여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크기가 양쪽 1700피트, 짧은 시간에 경영할수 있는 비즈네스.
주매상 $3500 이상 가능, 낮은 렌트, 주인이 이주상 팔고자함.
ASKING $18900(많은 EQUIPMENTS, 쿨러)+스탁.
☎: 425-1255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B) 661-5667, (R) 742-9450 MR. 김

자동차, 집유리 설치, Repair합니다.
보험청구등 자동차 실내장치도 합니다.
MOON'S AUTO TRIM & GLASS LTD.
☎: 633-0656(B), 493-7185(R)
정 해 문(휜치×킬)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769-0609 여 정 용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타일•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6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222-4662
SIMSON'S의 써비스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회사. 조율 액손조정, 건반, 캐비넷칠, 중고매매. 김 수 용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0200

미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각종냉장고 (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466-4304, 469-3341 박 기 황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인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746-0675 박 용 남

기타

영어개인교수지도함
상세한 문의는
☎: 279-7433 EVENING

사람을 찾음:
천두섭 딸 천혜경 찾음 76년 왔음, 서울 을지로 5가 창림사 이태희 씨애들 ☎: 1-206-329-5903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CALL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일간발행 기념

교포위문대공연!!

●최고의 인기 정상가수 총출연 ●최고의 가수진 ●최고의 캄보밴드 ●최고의 코메디안

●최병걸—난 진정 몰랐었네

●최 헌—가을비 우산속/앵두

●윤시내—열애와 고목의 주인공

●희자매— 아리랑 내님아/실버들

◎일 시 : 1981년 7월3일(금) 7시30분

◎장 소 : CENTRAL TECHNICAL SCHOOL
(BATHURST & HARBORD)

◎입장권 : $12.00, $10.00

<입장권 예매처>

●본 사 ●한 국 관 ●고려식품 ●단풍식품 ●동양식품
●삼복식품 ●서울식품 ●한국식품(동부, 서부, 본점>

주최 : 한국일보사